

세 가닥으로 꼬아 만든 줄은
거의 끊어뜨릴 수 없다.

셋 둘 하나

Three Persons, Three Units & The Fam.

KIM CHUL

셋 둘 하나

Three Persons, Three Units & The F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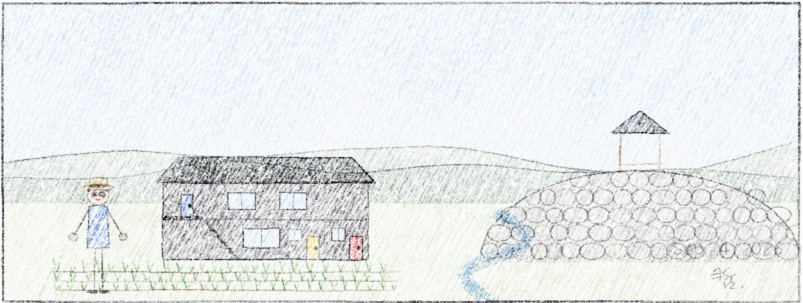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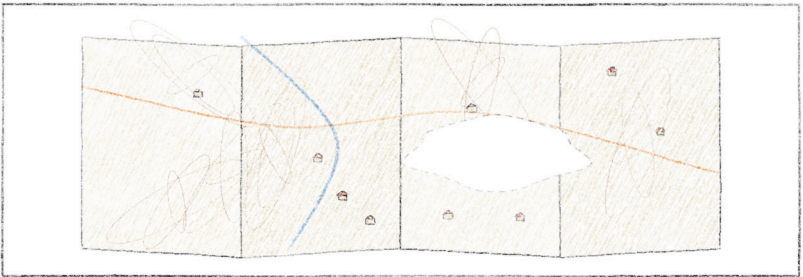
1장.	아침Good Morning	8
2장.	오전Ante Meridiem	15
3장.	점심Noon	23
4장.	이른 오후Early Post Meridiem	31
5장.	늦은 오후Late Post Meridiem	40
6장.	최고의 만찬The Best Supper	50
7장.	식사 후After Eating	57
8장.	잠자리Bedtime	64
9장.	세 사람Three Persons	78
10장.	세 유닛Three Units	87
11장.	삶 가족Life Fam.	97
12장.	진정한 나Authentic Me	115

Three Persons, Three Units & The Fam.¹

나는 리프린LiPrin이다.
내가 사는 곳은 히크Hic라는 동네로
눈크Nunc 동안 살고 있다.
이름을 굳이 밝히자면 여이지(여기-이렇게-지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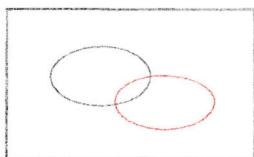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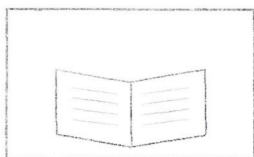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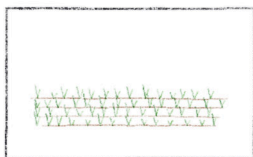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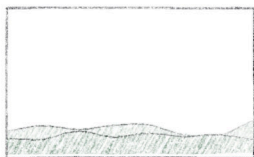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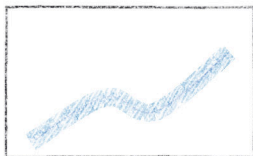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지도에서 없어진
지구에 없는 곳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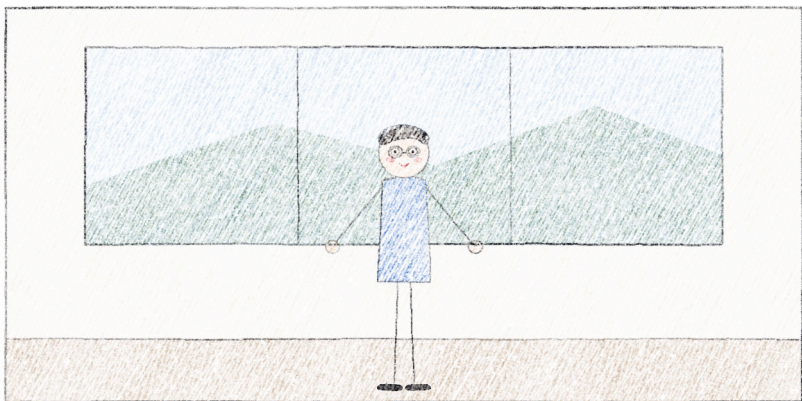


1) Family(가족)의 축약형. 가족처럼 친한 친구, 형제 같은 사람들->[내 사람]들을 뜻한다.

그러나 공기와 물과 숲과 산과 돌과 계곡이 있고,
 정원과 밭이 있고, 곳곳에 설치된 예술이 있다.
 음악이 있고, 명상이 있고, 책과 글이 있다.
 대화와 먹고 마심이 있고
 자유헌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내 곁에 있다:



스텔라.



제니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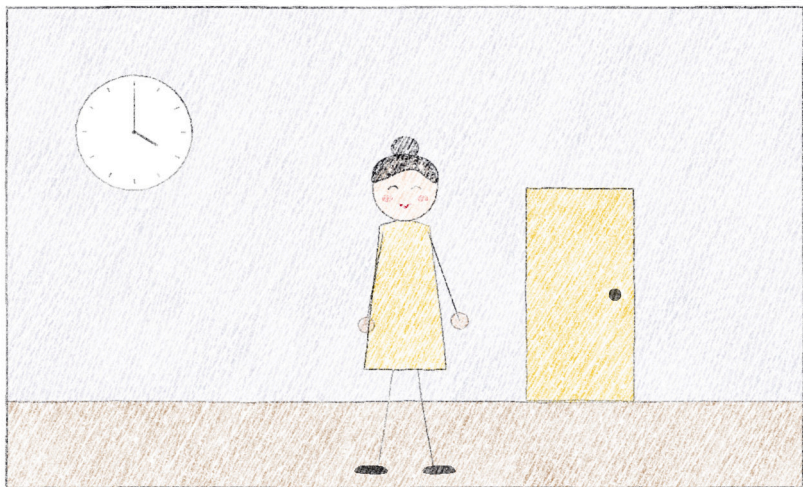


1장
아침 Good Morning

스텔라는 새벽 4시에 일어난다.
한여름임에도 아직 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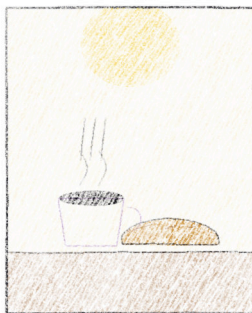


자신의 유닛Unit²에서 나와
커피와 빵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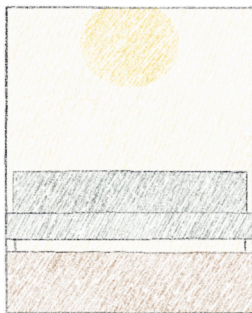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본채 공간 곳곳을 반듯이 깨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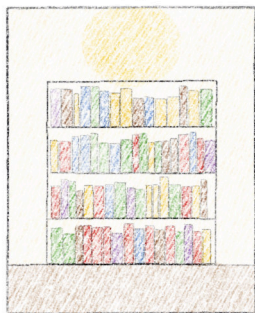
주방,



거실,



책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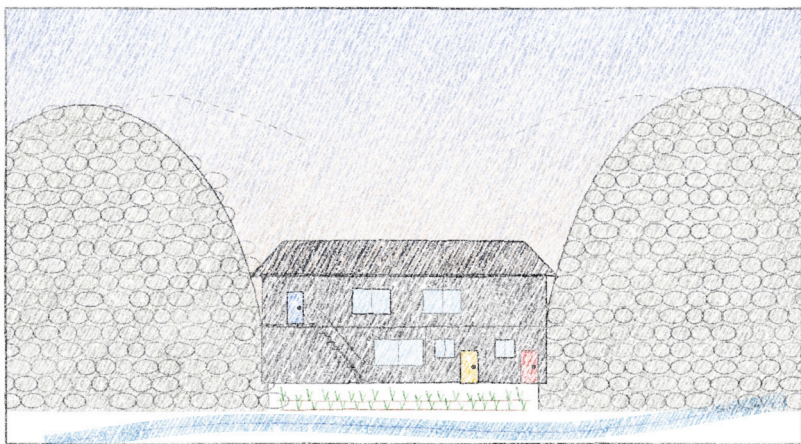


2) 거주 유닛housing unit. 하나의 주거 공간. 독립된 문, 주방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는 정원으로 나간다.
때론 꽃을 때로는 발작물을 가꾼다.



자신의 화원이자 텃밭인 건물 밖은
바위산과 계곡들이 힘껏 안아 주고 있는
안전한 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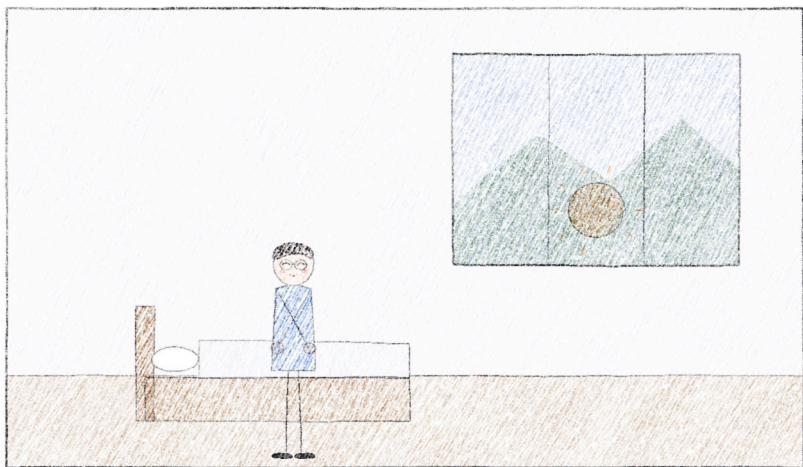
그 안정은 하나의 힘이다.

에너지이고 생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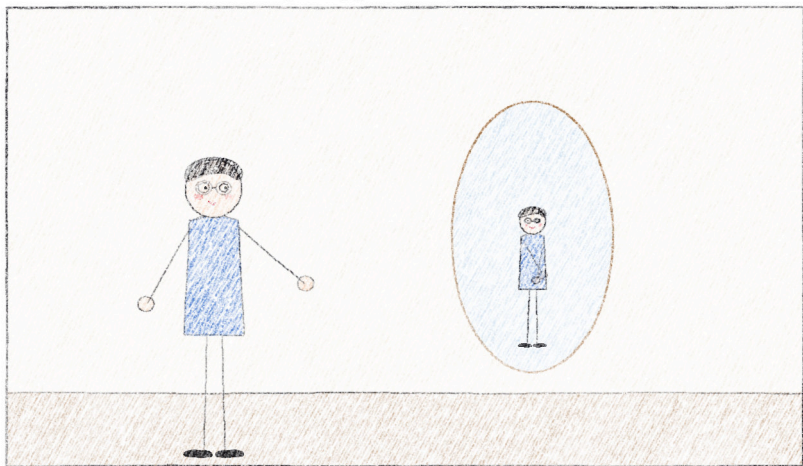
스텔라는 땅을 만지면서
자신이 살아났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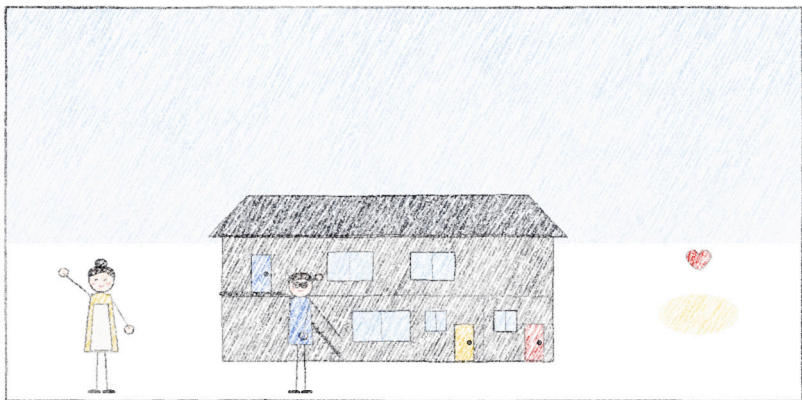
나는 해가 뜨고서야 일어난다.
침대를 정리하고 잘 쉬에 감사 인사를 하고,
내 유닛이 있는 2층에서 내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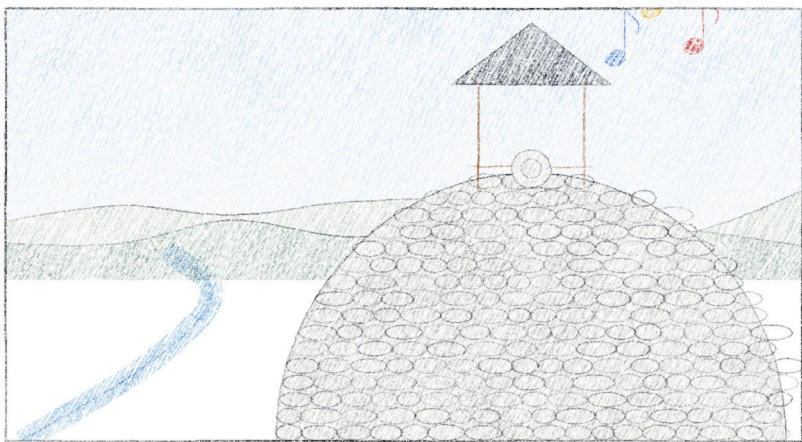
1층 거울, 나와 인사한다.



밖에 있는 스텔라와
아직 자신의 유닛에 있는 제니퍼와 아침 인사를 나눈다.
늘 미소가 있고 언제나 반가움이 느껴진다.



절벽 위에 있는 가제보gazebo.
굽이치는 계곡물과 바위덩어리들이 보이는 멋진 곳이다.
그곳에 놓은 제네바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오기 시작한다.



본채 거실에 앉아
스텔라가 준비해 놓은 커피와 직접 구운 빵을 함께 한다.



2장

오전 Ante Meridiem

나는 책이나 노트를 들고 스텔라는 대화를 시작한다.

제니퍼는 나를 바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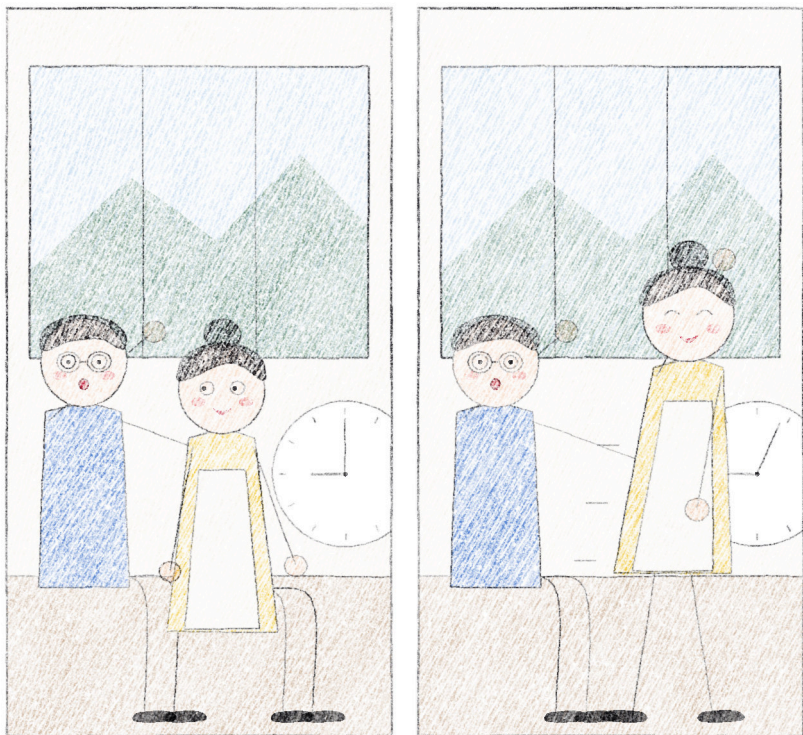
스텔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커피를 마신다.



세 사람은 한동안
음악과 대화와 읽고 씬이 있는 그곳에
서로의 곁이 되어 머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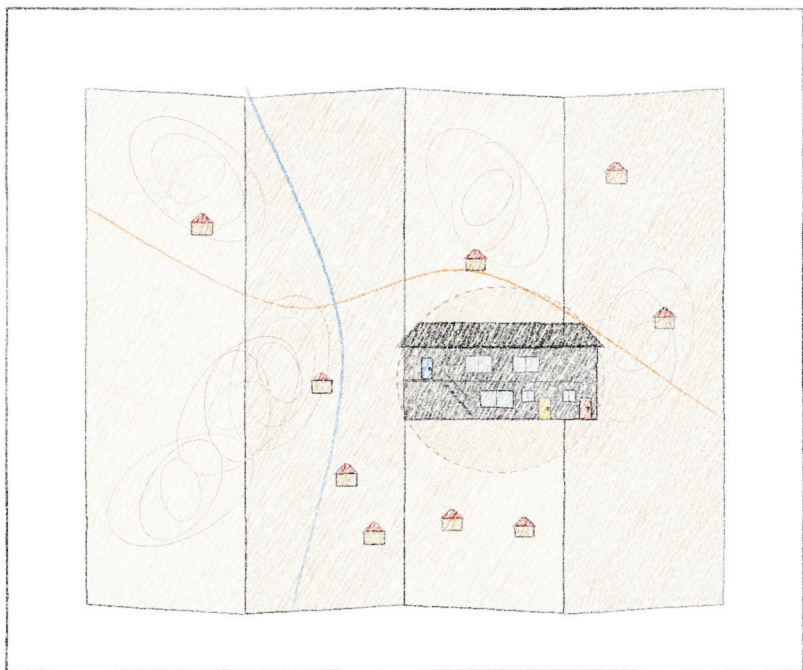
스텔라가 실례한다는 말을 영어로 하며 자리를 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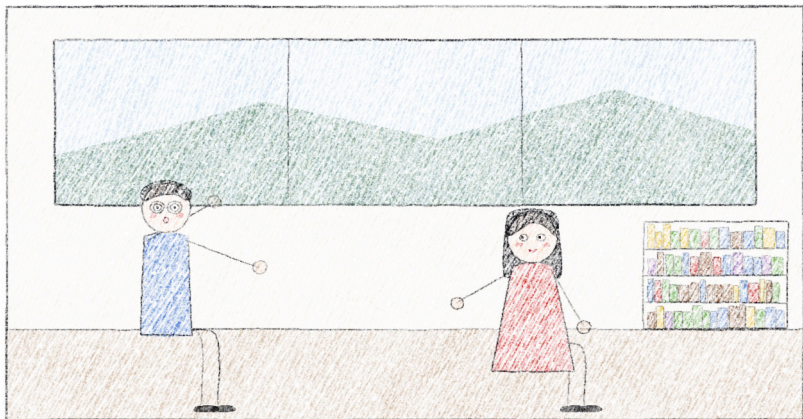
주로 내가 어떤 생각을 말하기 시작한 후
3~4분 즉 5분 이내에 그렇게 한다.

사실 나나 제니퍼는 깊이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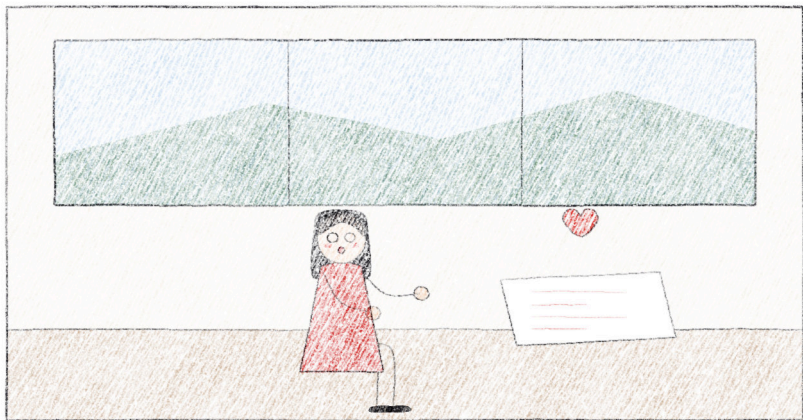
그녀의 움직임이 없으면
이곳은 다시 지도에 나타나는
별것 없는 지구가 되어 갈 것이라는 사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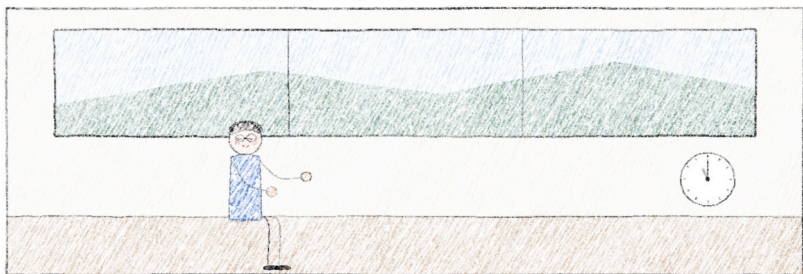
제니퍼는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책을 읽는다.
 중간중간 스텔라를 도와 주방과 거실을 오고 가지만
 주로는 논픽션 장르의 서적들에
 한 시간 정도 빠져 있다.



직접 글도 쓰기도 하는데 시를 쓴다.
 자신도 신기하게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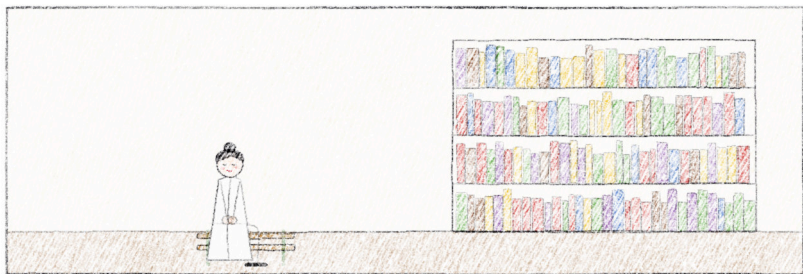
나는 그 자리에서
3시간 정도 읽고, 쓰고, 사색한다.



중간에 제니퍼도 나간다.
혼자 잠시 산책을 하고 자기 유닛으로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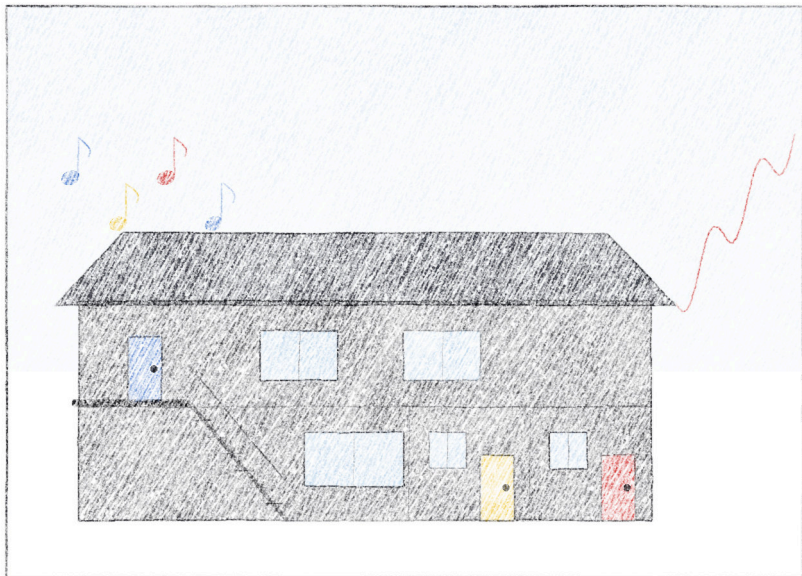


새벽부터 몸을 쓴 스틸라는
책방 벤치에 하얀 가운을 입고 쉼을 갖는다.



집이 고요하다.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선율 그리고
건물 가장 끝 쪽에 있는 제니퍼 유닛에서
때때로 들리는 성악 발성의 노랫소리.



정오 즈음 되면

스텔라가 본채 파우더룸에서
양치질을 한다.



제니퍼는 자기 유닛에서
요가를 하고 샤워를 한다.



3장
점심N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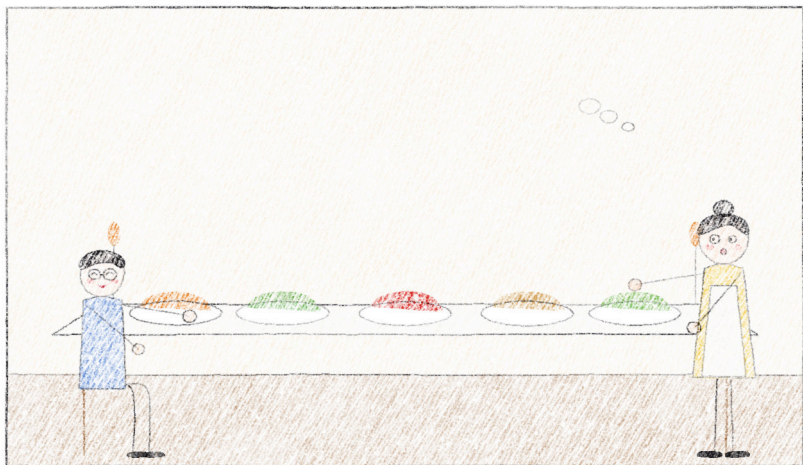
나는 오랫동안 하루에 저녁 한 끼만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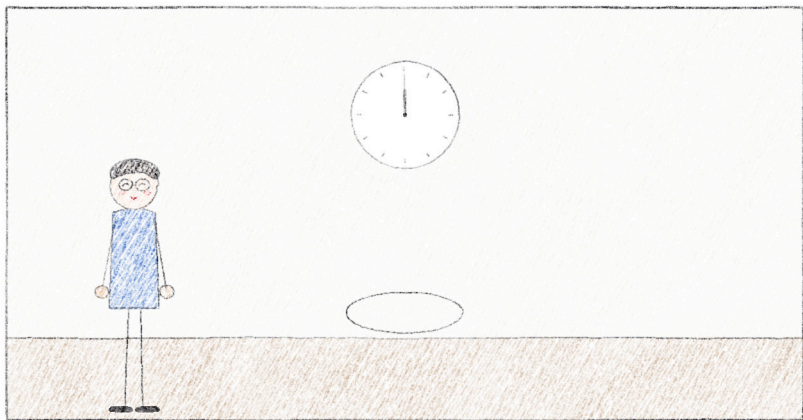
Sep. 24. 2026

이정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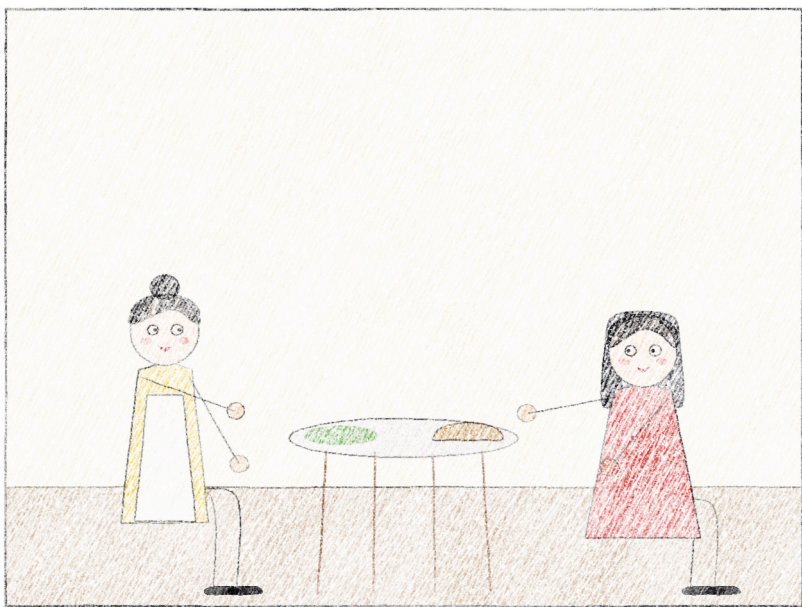
스텔라는 저녁이 남들 세 끼의 양과 같다고
늘상 웃는 소리를 즐겨 하지만
나에게 편한 리듬이 그렇다.



점심은 무엇도 안 먹어야 좋다.
몸도 기분도.



스텔라와 제니퍼도 나같이 해 본다고 이야기들은 가끔 하는데
점심으로 간단한 음식들을 챙겨 먹는다.
그저 조금 아주 간단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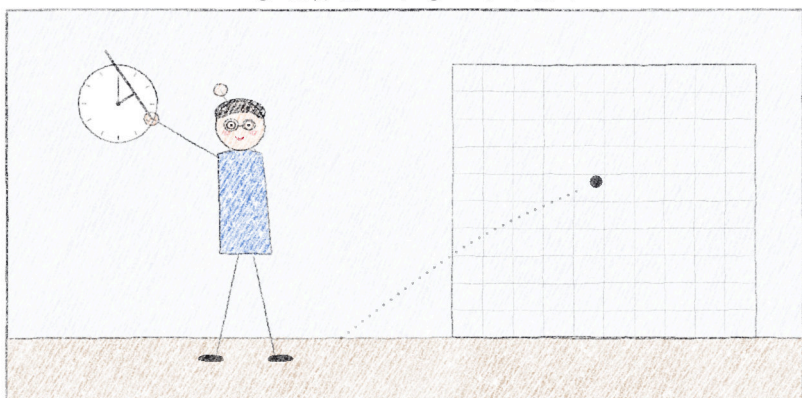
12시경 정도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2층 내 유닛으로 들어간다.

한 시간 정도 스트레칭과 기본적인 홈 트레이닝을
루틴에 따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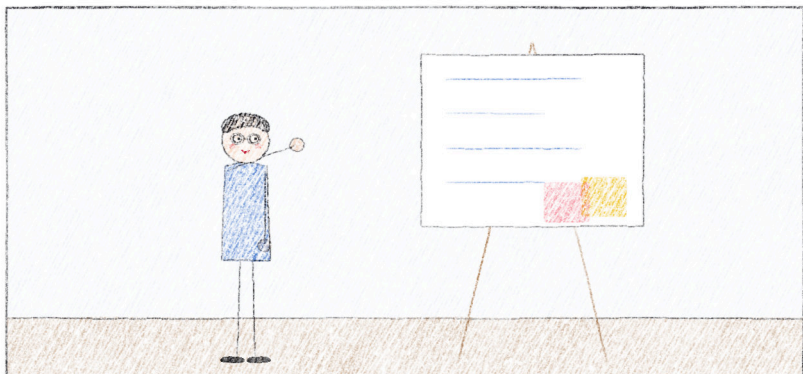
이때 아이패드를 켜고 철학이나 과학 유튜브 콘텐츠를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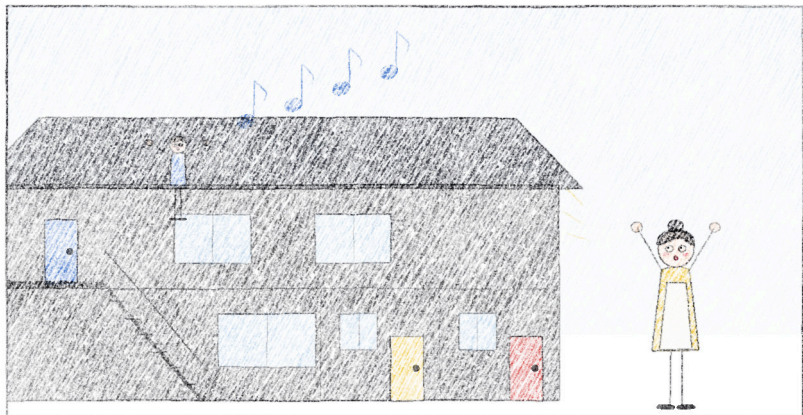
이 시간을 마치면 층고가 아주 높은 내 유닛
한쪽 공간에 설치해 놓은 골프 연습 네트에서
스윙 연습을 2시 정도까지 한다.



이때는 중간중간 커다란 창문만 한
프레젠테이션용 포스트잇 이젤에 가서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유성펜으로 적어 둔다.



좋은 노래도 감정을 실어 크게 부르기도 하는데,
밖에서 정원 일을 하는 스텔라는
윗집 아저씨 또 시작했다고 소리를 친다.
목청이 좋아 컴플레인도 또랑또랑 잘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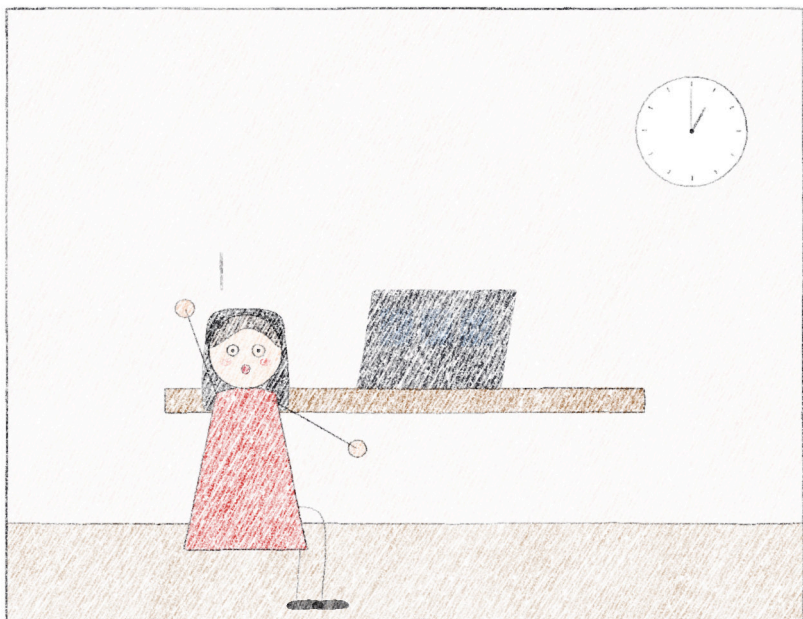


제니퍼는 자기 유닛에서 이 시간 동안 일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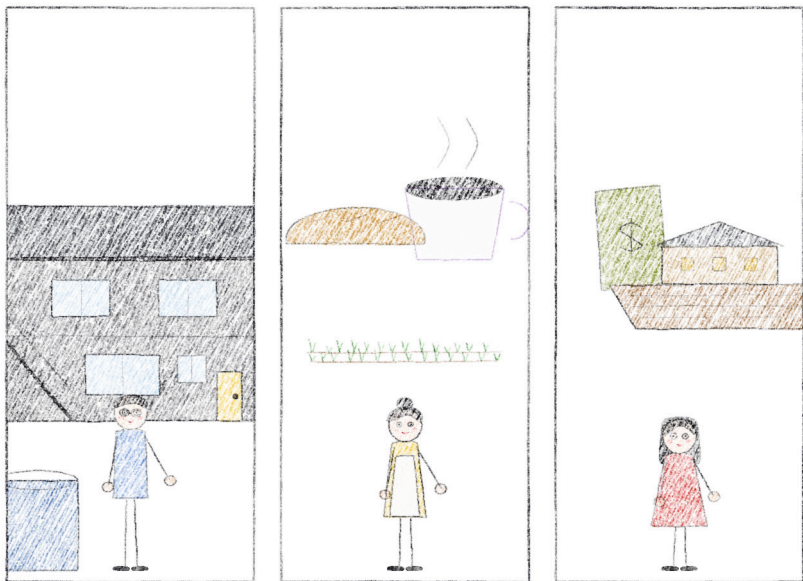
전화며, 온라인 작업이며, 화상 회의며.

1시부터 3시까지가 그녀의 재택근무 시간이다.

우리 셋 중 유일하게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



나는 부동산 투자와 관리,
 스텔라는 살림 관련 관리 그리고
 제니퍼는 자신의 자산으로
 우리 팸Fam의 경제 중에서 매크로Macro한 것들인
 규모가 있는 계획들을 담당한다.



서로 공거供居하며 산다.
 동거同居하지만 서로에게 이바지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면 패하기 쉽고



두 사람이면 방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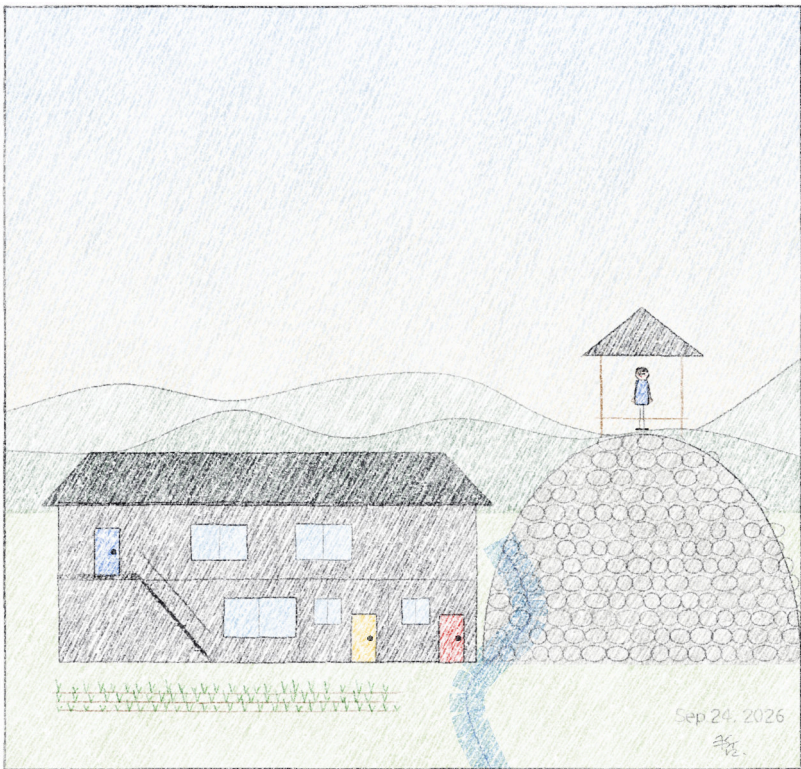
세 가닥으로 꼬아 만든 줄은
거의 끊어뜨릴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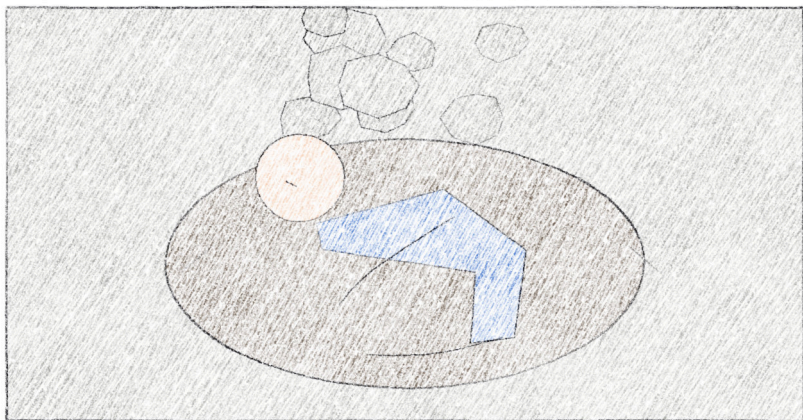
4장

이른 오후 Early Post Meridiem

아는 사람은 아는 바대로 살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바를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 맞다.
나는 궁리窮理와 각오覺悟라는 단어를
오랜 기간 동안 살아 왔다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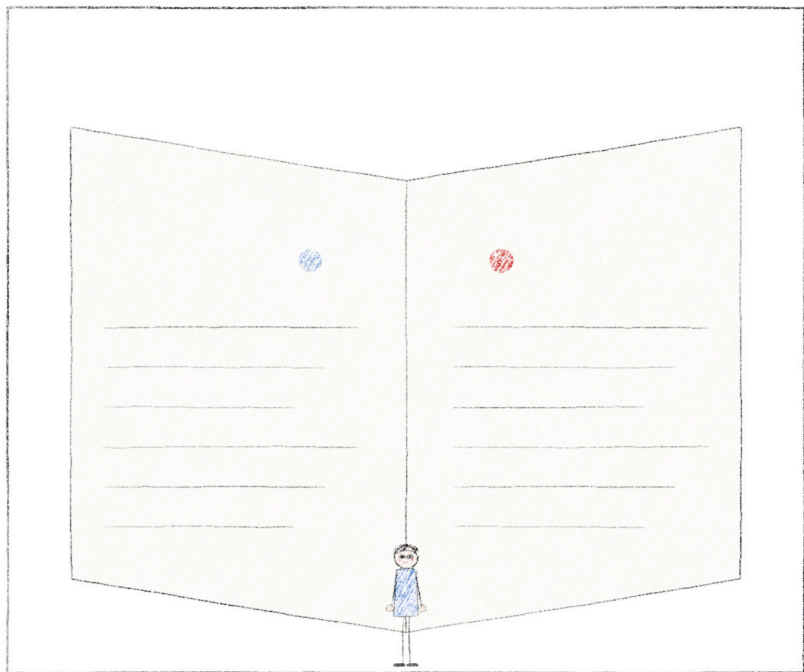
한자 궁窮은 굴을 파고 들어가
 몸을 활처럼 구부린 채로 이도저도 못하는
 궁지窮地의 사람을 그려낸 문자이다.



그러나 지식이나 정보 수준이 아니라
 자기와 삶을 알게 되는 깨달음 곧 이치理致는
 몇만 시간의 궁리 끝에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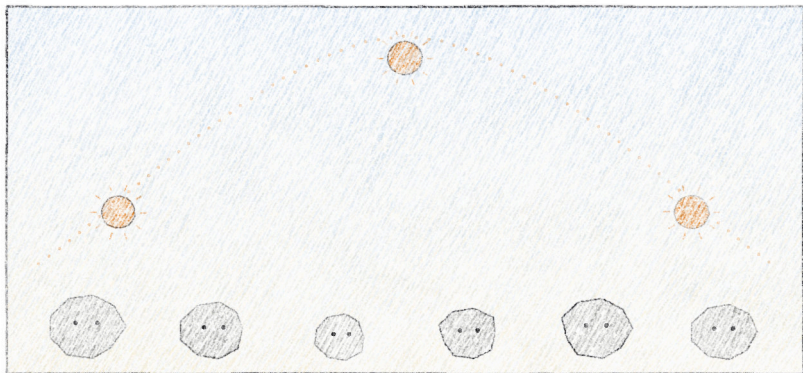


사전을 찾으면 각오의 뜻이 둘로 설명되어 있다.
1번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당할 어려움 따위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굳게 함. 또는 그런 마음이다.
2번은 이치나 도리를 깨우쳐 앎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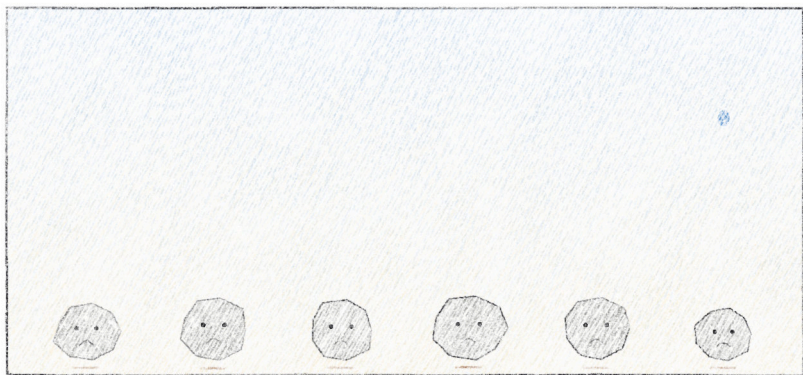


각오하는 사람은 많지만
궁리하여 얻은 앎을 제 삶으로 실현한 사람은
극히 희귀하다.

해야 할 도리와 해왔던 행동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에 매일의 해처럼 뜨고 지고 한다.
 생각과 생활이 향상되고 변화되었으면 하는
 꿈과 바람을 품고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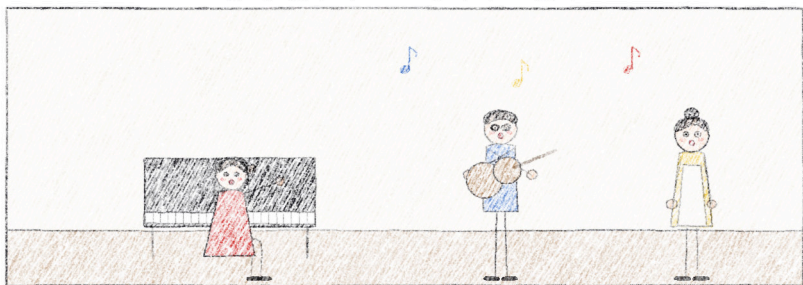
그러나 실제로는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잡은 터라도 있으면
 박힌 돌처럼 일절 나아가지 않는다.
 보고 있자면 그저 슬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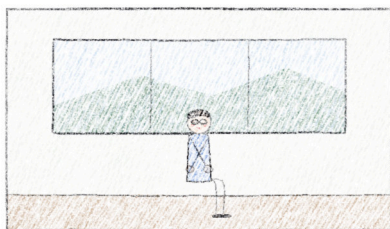
행복과 사랑과 기쁨과 부요에 대한
변함없는 생각과 생활들만 있다.
행복과 사랑과 기쁨과 부요 속에
짹짹이 걸어 들어와 사는 이들은
비유하자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낸 사람들뿐이다.
산 위에서, 그 오랜 시간, 조롱과 비웃음을 받아 가면서,
그래도 계속 그렇게 궁리하여 각오에 이른 자들.



이른 오후에는 각자 피아노나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함께 연주하고 노래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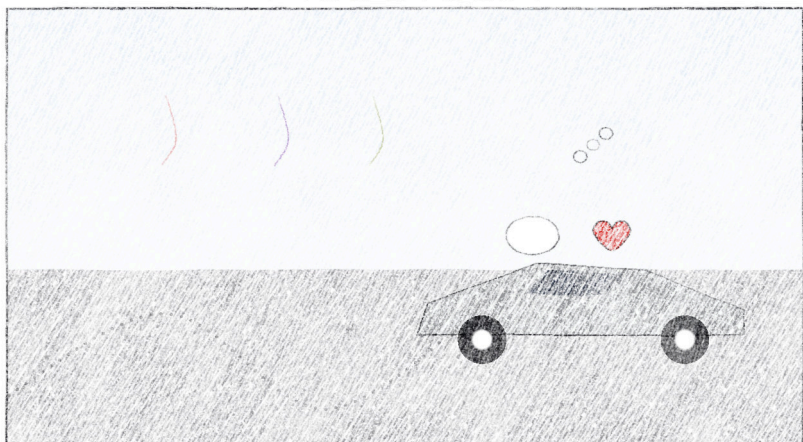
내가 산 쪽에 마련된 명상실에서 홀로 명상을 할 때면,
스텔라와 제니퍼는 티타임을 가지며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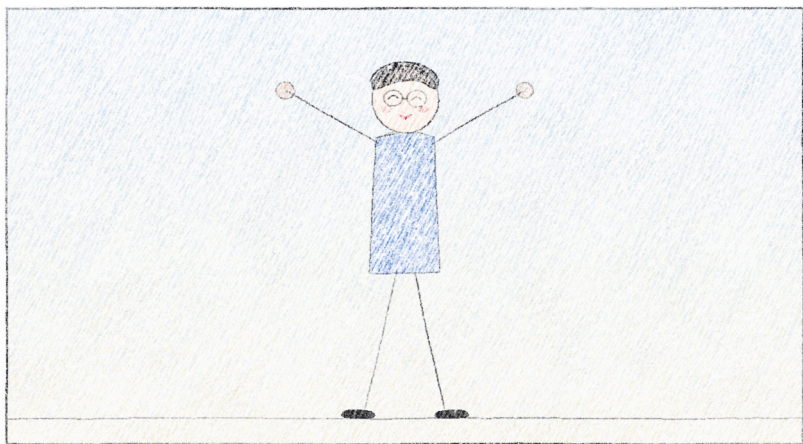
나와 제니퍼가 함께 있을 때면,
스텔라는 빵을 반죽한다.



머리와 마음은 자주 아니 습관처럼
 불평과 불만, 분노와 분리, 욕심과 욕망으로
 우리 삶을 만취 운전한다.



몸은 그렇지 않다. 속이지 않는다.
 설명이나 꾸밈없이 자신이 되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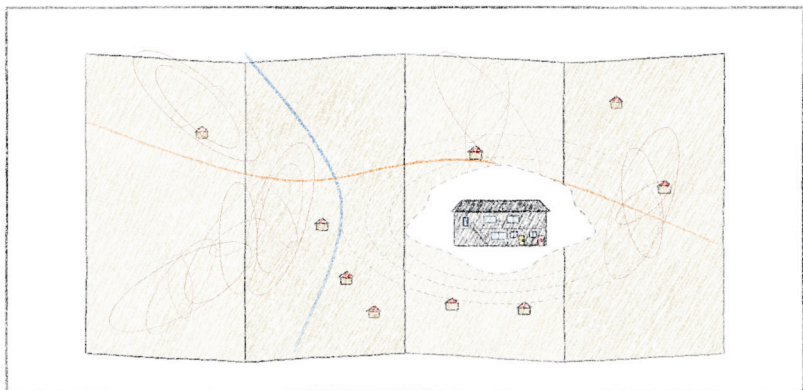
좋으면 그저 좋아야 한다.

싫은 것을 해야 할 때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좋아해서 그렇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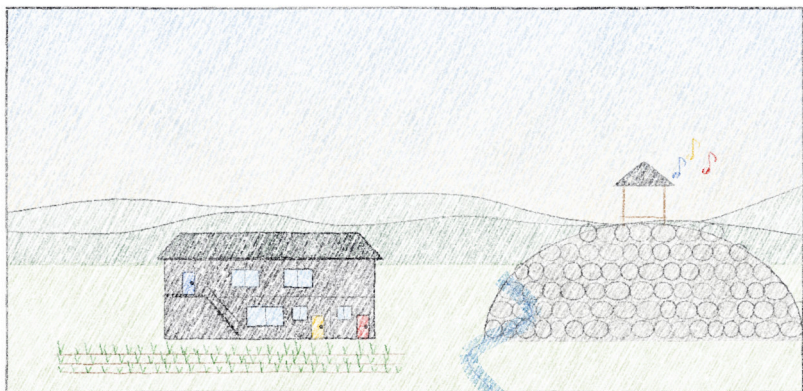
이처럼 제 곁들에게도 좋아서
진정으로 좋아하는 몸의 좋아함으로
머리도 마음도 때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른 오후 이곳은 라틴어 히크Hic가 뜻하는 여기가 되고,
 지금이라는 눈크Nunc가 된다.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의 지도에서 사라진다.



지구상에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체현되고 체험되는 현상이다.



알릴 수단이 없다. 알려 줘도 이해 못 한다.
 알리면 안 된다. 알 사람 없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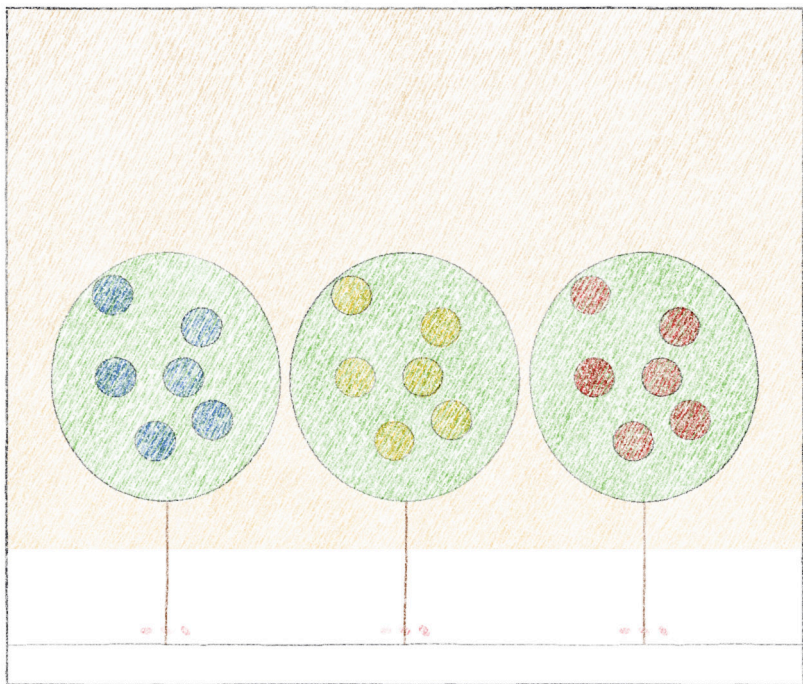
5장

늦은 오후Late Post Meridiem

리프린, 스텔라, 제니퍼.



늦은 오후가 되면,
이 셋은 피웠던 꽃을 떨구고 열매들이 된다.
모두 아침 시간처럼 모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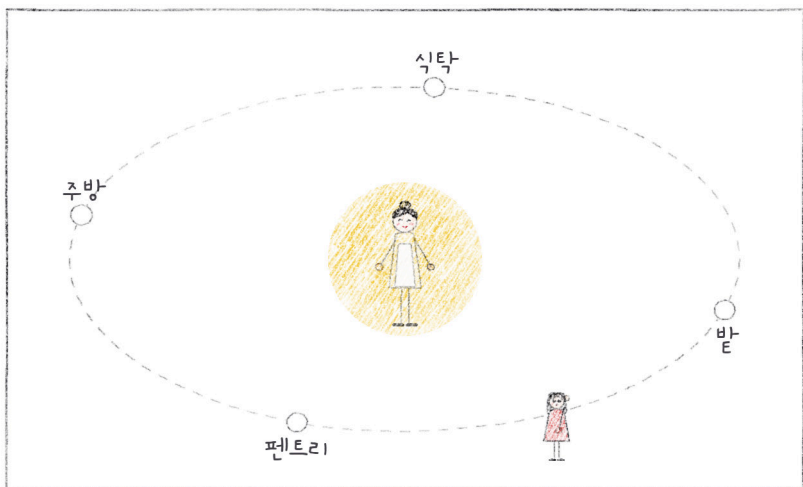


밖이든 안이든 서로 보이는 곳에서
여기저기 다니며 움직인다.

지갑도 없이 마트에 갔다 온다 하는 스텔라는
텃밭에서 보이고,



제니퍼는 스텔라 별 주위를 도는 위성처럼,
밭과 펜트리와 주방과 식탁을 오가며
수다와 손을 더한다.



나는 작업을 한다. 몸 쓰는 작업, 남자가 필요한 힘쓰는 일들이다.
 노동자로 보이는 시간이다. 온몸이 땀이고 흙일 때가 많다.
 내가 참 좋아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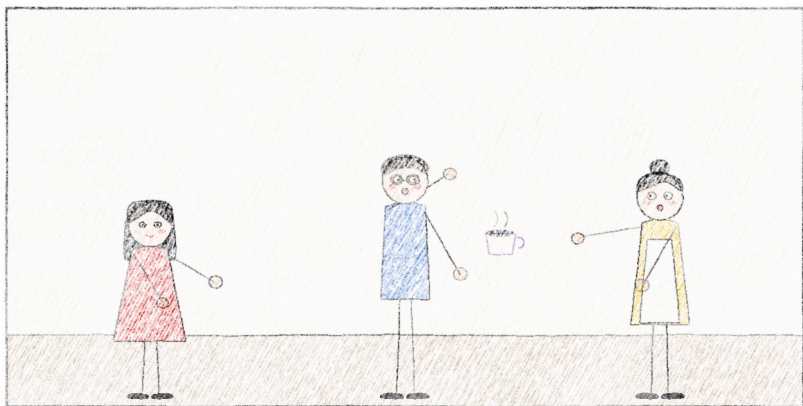


밖에 하늘과 산만
 나를 보고 있는 수돗가에서
 샤워를 하고
 설렘으로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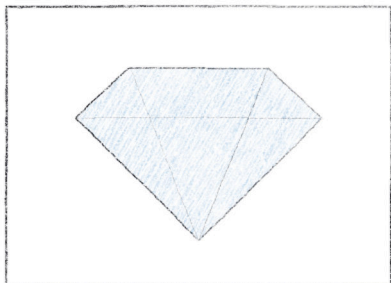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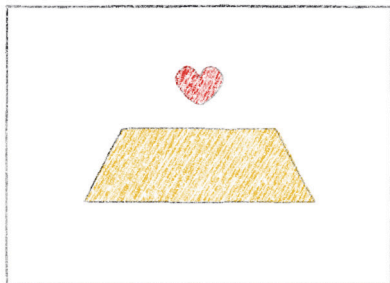
만찬이 기다리고 있다.
 더 좋을 수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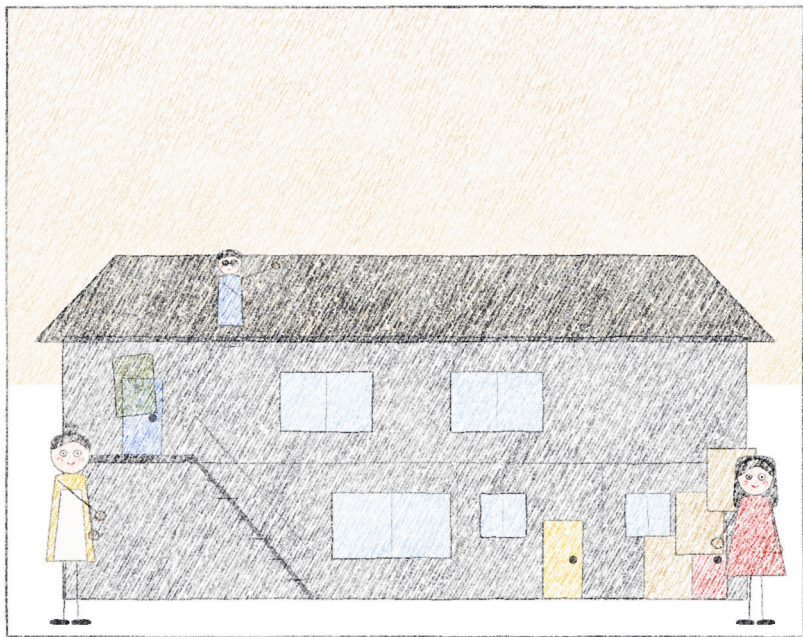
제니퍼는 듣고 돕는 성품의 여인이다.
 늘 나와 스텔라의 말과 표정을 살피고
 기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조용히 건네는
 종류의 사람이다.
 자기 말마따나 체력과 재력은 문제없단다.



나와 스텔라 둘 모두 알고 있다.
 제니퍼의 품성과 사랑이 특별한 것임을.
 사랑의 순도는 금금쪽, 성품의 투명도와 강도는
 다이아몬드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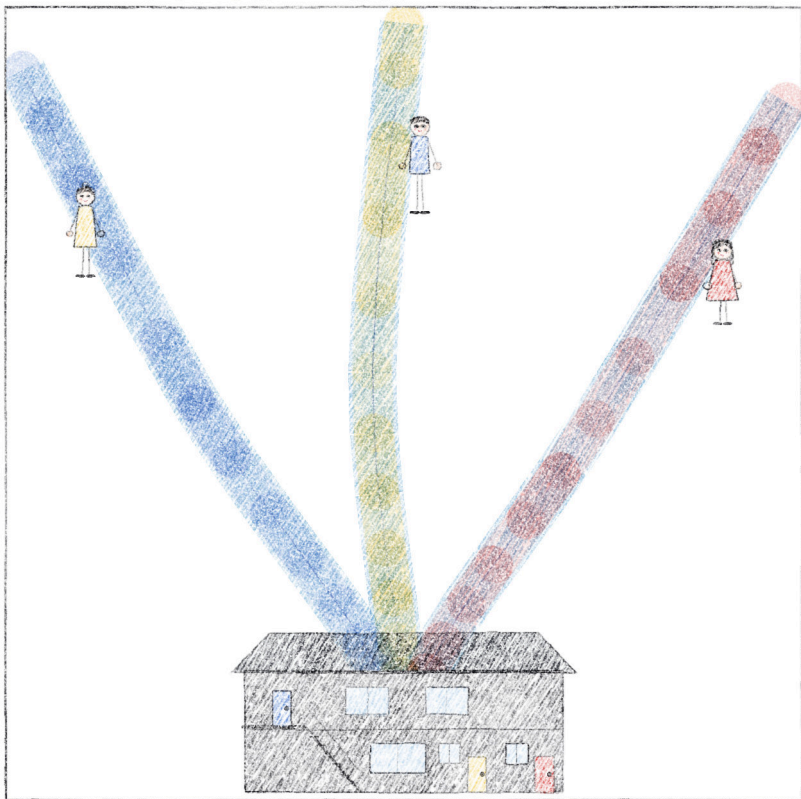


일 년에 평균 서너 번씩은
재정이 큰 단위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다.
매달 생활에 있어야 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도
꼭 있어야 한다.
우리 삶터 곧 집들을 구입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련 세무를 하는 데 들여야 하는 재정도
확보해 놓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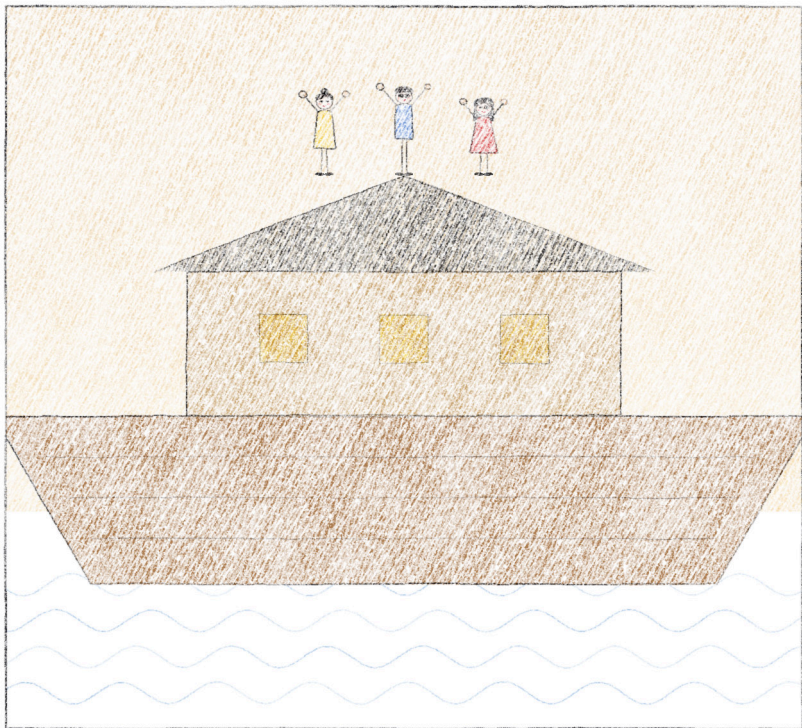


제니퍼, 스텔라, 리프린.

우리는 각기 다른 배경에서
오랜 시간 일반적인 방식으로 살았었다.
언제인가 서로 깨달아覺悟 알게 된 바가 있었고,
운명의 강을 따라 한 곳으로 흘러 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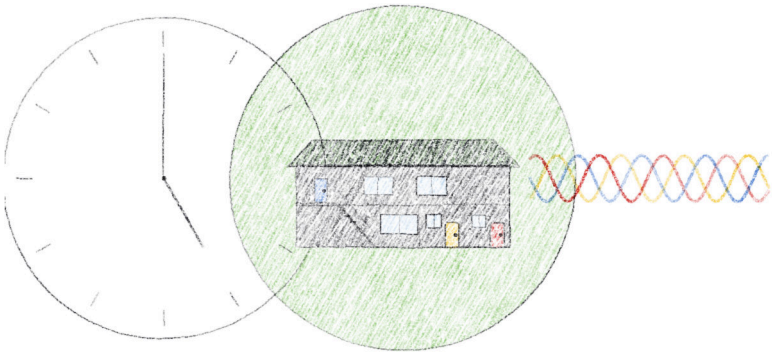


노아의 방주 같은 새로운 가족New Fam.을
건조建造하는 일면 실험적인 삶을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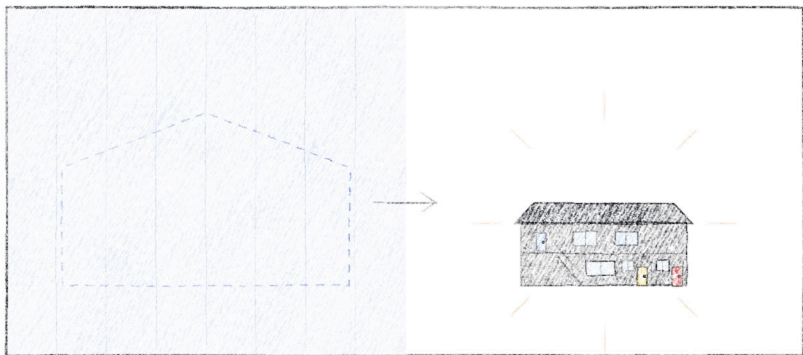
우애, 우정, 사랑의 관계와
경영, 경리, 경제의 운영이
바람과 꿈에서처럼 여기 이곳에
이렇게Sic([L]시크Sic_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눈크Nunc 에트et(&) 히크Hic, 시크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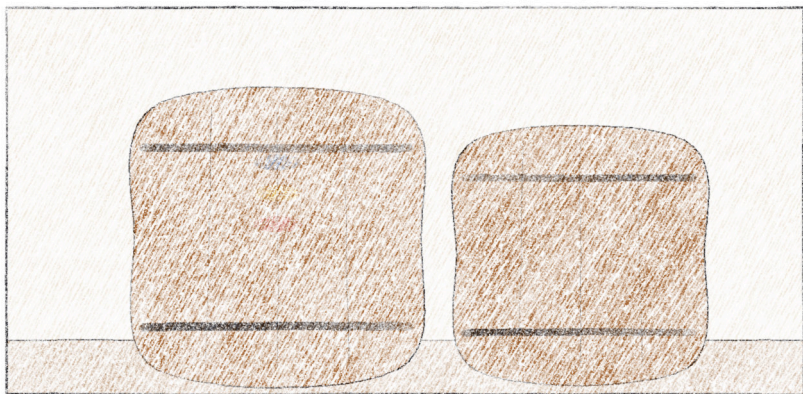


[지금, 여기 그리고 이렇게]라는
일상-중심-살이 방식이
우리의 삶을 고유하고, 깊고, 독특하게
빛어내고 있다.

방식이라 할 때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형이상학의 것이지만,
 그 방식이 파악 가능한 형이하학적 구체물이 되면
 의도와 결과는 사방으로 드러난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노아의 방주라고 비유했지만,
 위스키를 담은 오크통이라 빗대 말해도 되겠다.
 그 속에 일상일상 머물다 보면
 통 표면의 태운 향, 곡물 자체에서 나오는 맛이 어우러져
 지구에는 없는 one of a kind 술이 된다.



6장

최고의 만찬The Best Sup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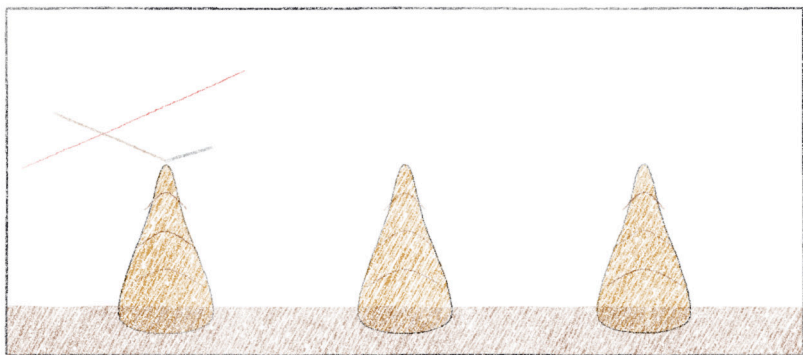
스텔라는 성정이 곧고 바르다.
대나무를 생각하면 얼추 잡힌다.



그리 유연하지는 않아
 둥그렇게 구부리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사실 그렇게 할 일도 없는 것이
 스텔라의 대나무는 주위에 최고의 식감과 향미의 죽순을 낸다.



암수한그루 맹종죽孟宗竹인데
 이토록 특별한 대나무로 무슨 공예작품을 만들 것도 아니고...
 꺾고, 깎고 불필요. 그대로 그렇게 그대로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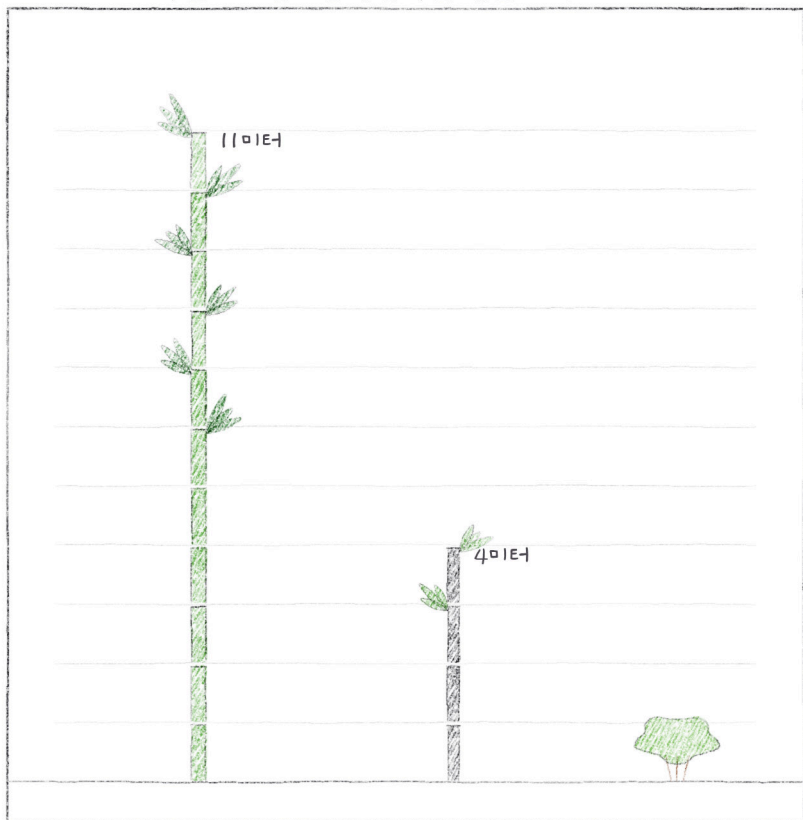
제니퍼는 암수판그루, 오죽烏竹이다.

울곡 이이의 어머니 사임당 신씨가 머물렀던 곳이
오죽헌烏竹軒이다. 주위에 검은 대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줄기가 녹색인 대나무인 줄 알고 지나다가
유학 시절 자기 본성은 색色 짙은 줄기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오죽은 높이로는 4미터 정도,
죽순대로 알려진 맹종죽은 평균 11미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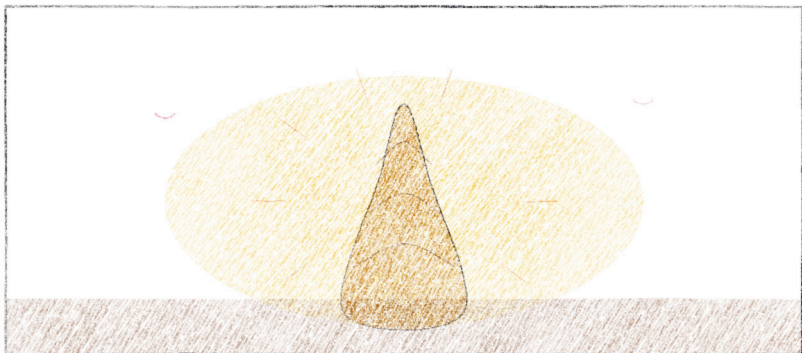
나 리프린은 대나무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단신短身이다. 관목과灌木科에 속한다.

스텔라의 죽순Bamboo sprout은 단순한 음식 재료가 아니다.

언제나 생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다.

빛깔이 순수하고 웃는 소리가 늘 함께 있다.

밝게 비추고 즐겁게 하는 좋은 에너지를 주위에 방출한다.



그러한 존재성을 소유한 사람이 요리 솜씨씨까지 맞지다.

상당한 수준이고 창의적이다.

정수正手 없이는 묘수妙수가 불가능한데

기본이 충분하니 색다른 요리들을 창조해 낸다.



제니퍼는 대나무이기는 한데 언급한 바대로 색색대나무로
음식 준비를 주도한다기보다는
저녁 만찬 시간 중에 분위기와 대화 그리고 돕는 손으로
다채롭고 화려한 흥취를 불어 넣는다.



그 덕분에 지금 할 수 없는 것, 가지 못한 곳, 여기 없는 것들이
우리 상 위에 올라오지 못한다. 정서가 다르다.

기미상합³하여 서로의 몸과 맘을 먹고 마시고,
주고받고, 이야기하며 웃고 또 웃고.

인생 외롭지 않다. 전혀.

What a super supper time!



3) 기미상합氣味相合_생각과 취미가 서로 맞음.

7장
식사 후After Eating

저녁 식사는 3시간 정도 이어진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이미 하루가 넘어간 스텔라는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작품같이 전시하고
 한동안 함께 감상하며 웃고 즐거워하다가
 “Enjoy~!”라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유닛으로 들어가 바로 깊은 잠에 든다.



내일 진심으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기에



하며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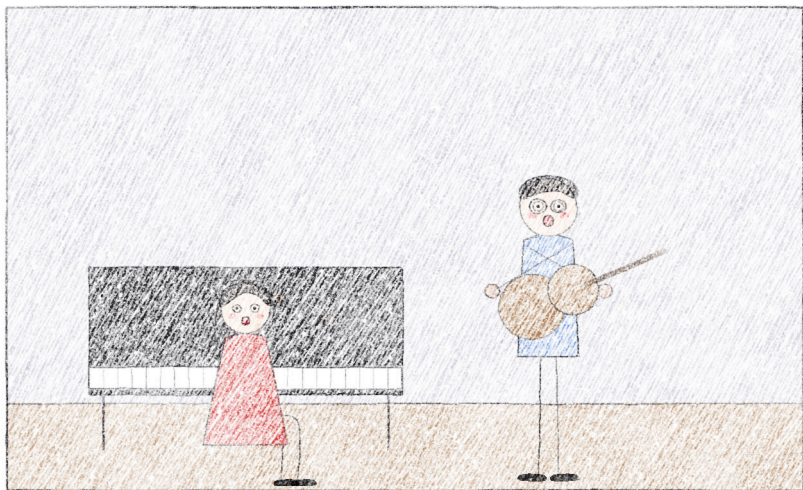
자리에 남은 나와 제니퍼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조금 더 채취주筵就酒⁴한다.

TV를 유일하게 볼 때가 저녁 식사 시간인데,
볼 것이 없으면 중국 사극 시리즈를 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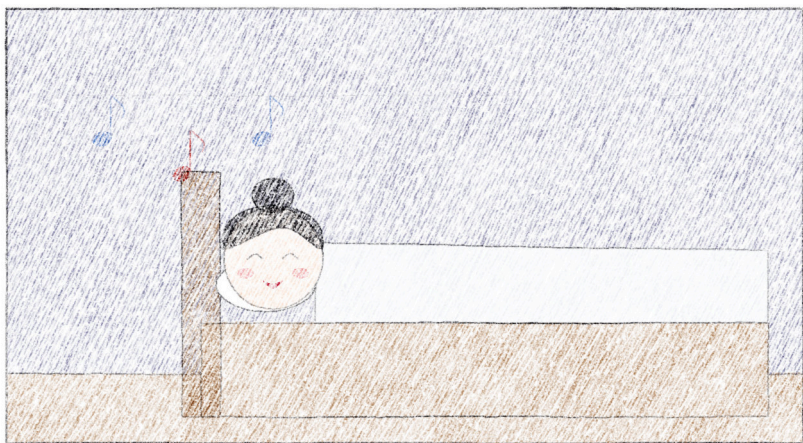


4) 음식을 안주 삼아 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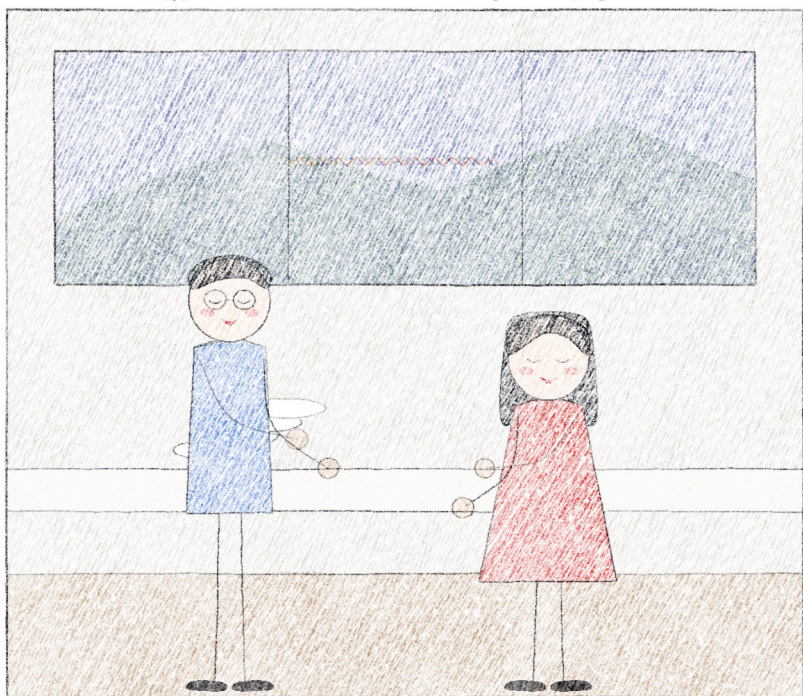
제니퍼와 그렇게 있다가
거실로 나와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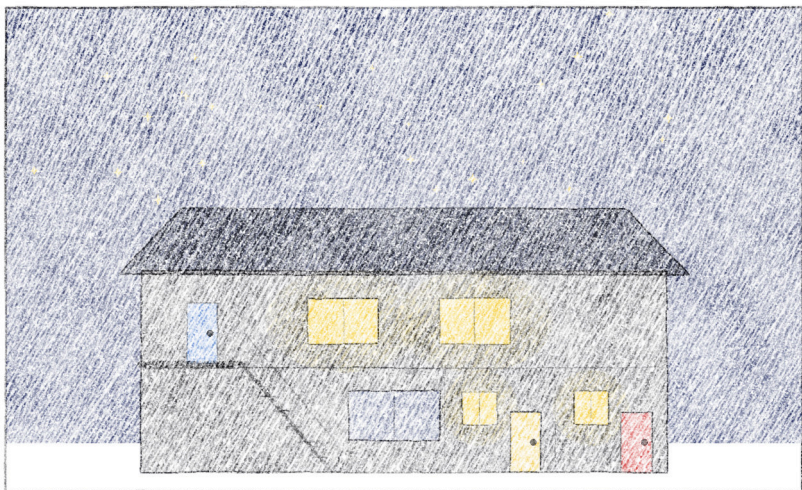
스텔라 유닛과 멀지 않은 곳이지만 스텔라는 KO & OK.
자장가처럼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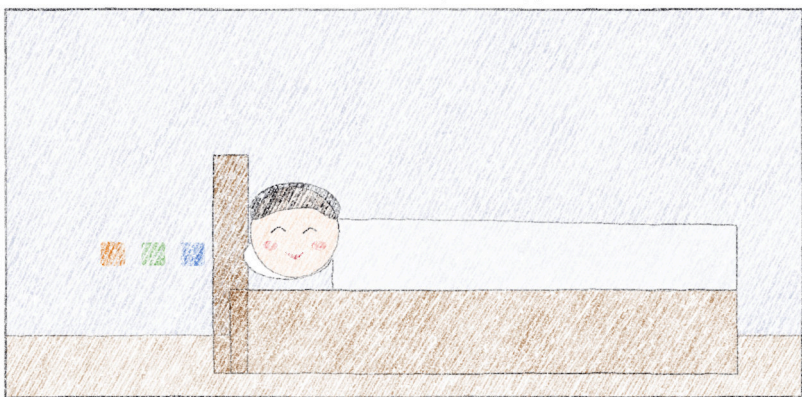
이제는 상을 치울 시간.
제니퍼와 나는 오늘의 행복을 지어 내어준 스텔라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삶터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으로
말없이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정리에 집중한다.



나는 약들을 챙겨 먹고 2층 유닛으로 올라간다.
제니퍼도 자기 유닛으로 들어간다.
모두 제 집으로 갔다. 내일 모두 다시 보게 되겠지...



30여 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간단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는다.



8장

잠자리Bedtime

인간에게는 기본 욕구가 있다.
본능적이고 생명 작용이 일어나는
신체의 안녕과 직결되는 주요한 욕구이기 때문에
본능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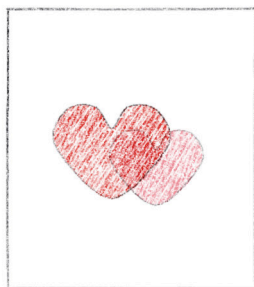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갈증이 극에 달하면 몸은 머리고 마음이고
당장 그리고 오직 물을 욕구하고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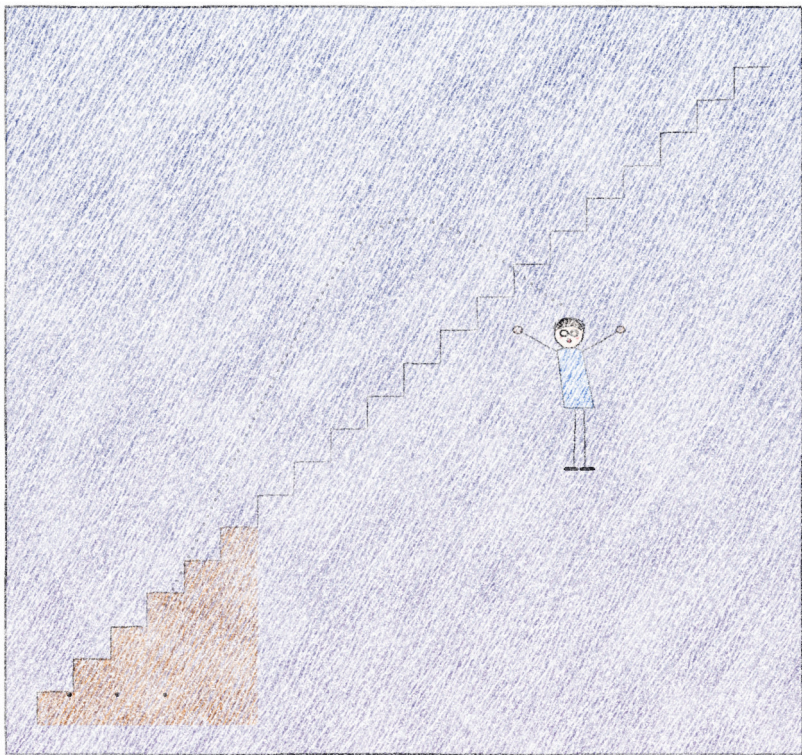


본능의 기본 욕구가 충족될 때, 생존과 삶의 질이 유지된다.
그중 하나가 수면욕구이다.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마시고,
잘 호흡하고, 잘 자고, 잘 하고 살면
기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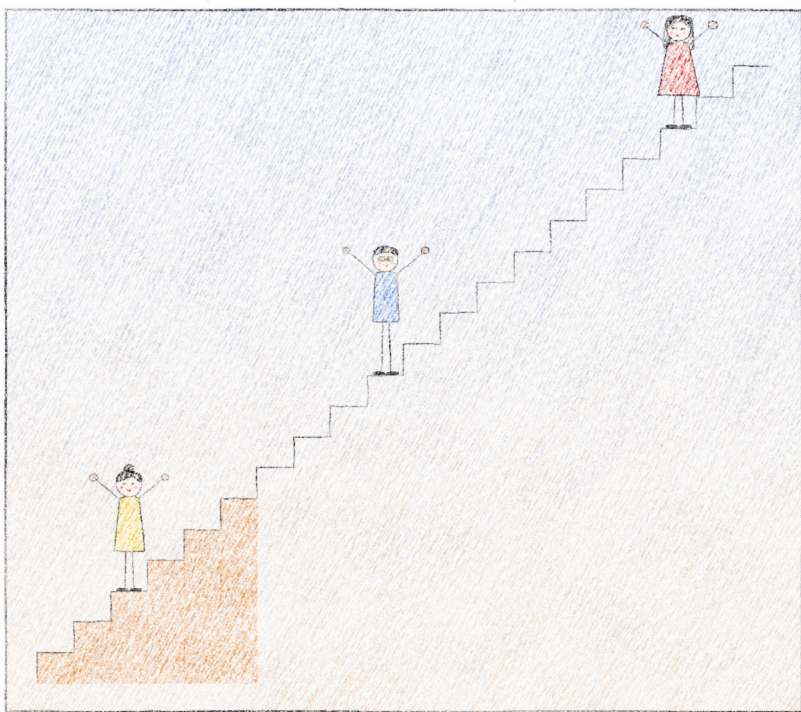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Needs를 귀히 여기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 어떤 비결도, 기적도, 능력도 무용하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백 계단 중 최소한 초기 30계단 정도이다.
건너뛰고 위로 오를 방법은 인간계에는 없다.



본능의 기본 욕구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준다.
그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깊이 자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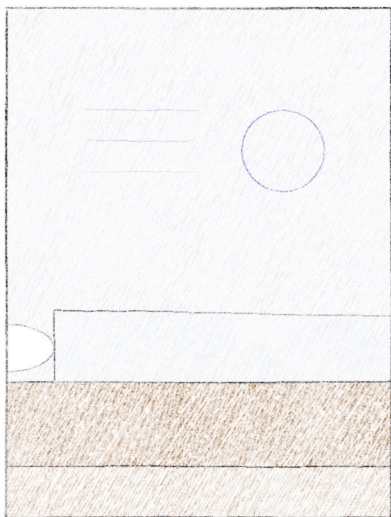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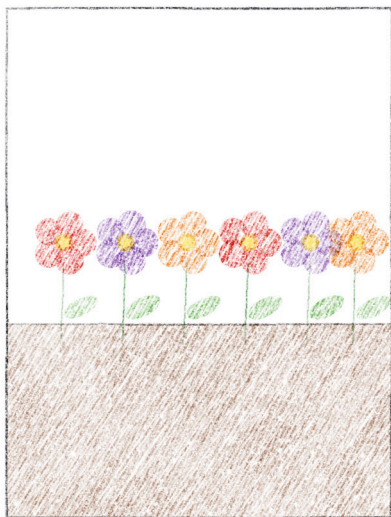
처음 30 계단들을 디딜 때
고상, 고매, 고아한 높은 자기 존재에 이르게 된다.
백 계단 모두가 나. 어디 서 있으나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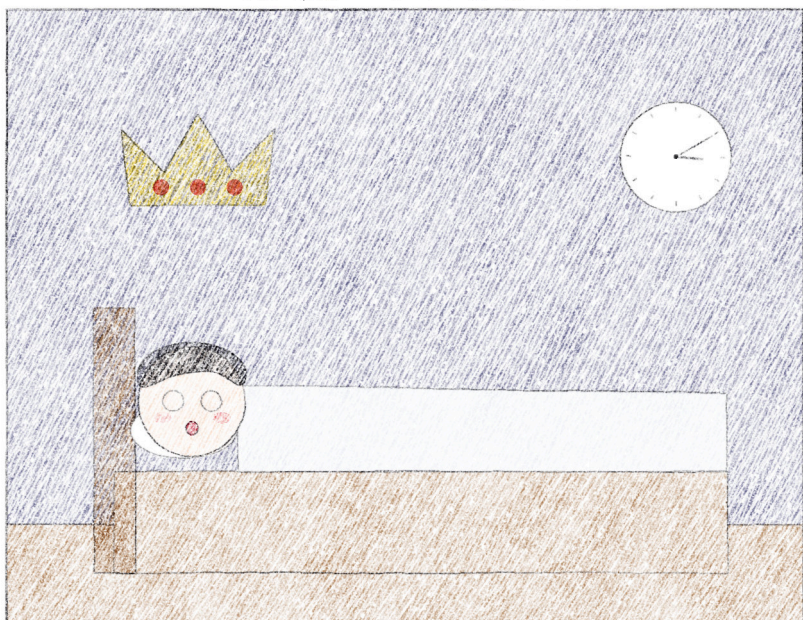
침대Bed는 의미하는 바가 예전에는
단순히 몸을 눕히는 장소나 자리였다.

지금도 식물 화단을
영어로 플라워 베드
flower bed라고 한다.
바닥을 파고 메우고 해서
평평하게 해 놓은 곳이
베드Bed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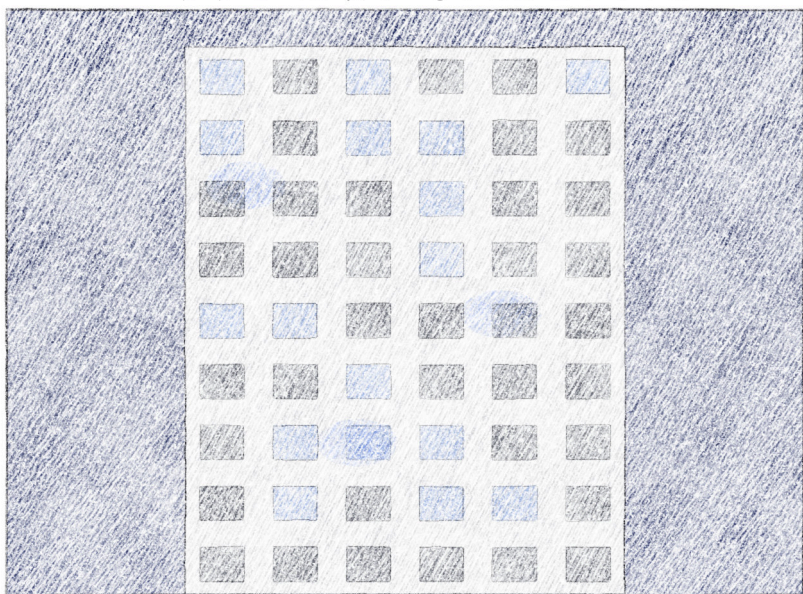
지금은 가구화家具化되어서
침대는 과학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을 정도이다.



침대와 매트리스가 제 아무리
스웨덴 왕실에 들어가는 초고가의 것이라 하여도
잠을 못 자든 안 자든 한다면
사용 없는 고가 가구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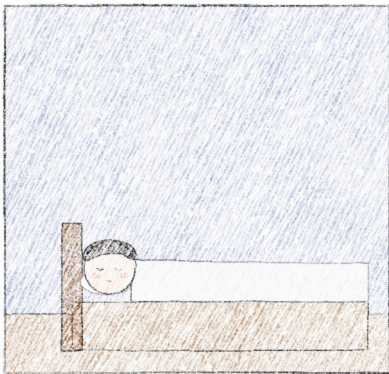


수면욕이 있는 인간은 일상에서 수면해야 하고
수면하고 싶어야 하고
그로 실제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산다.
그런데 니체를 꼭 언급하지 않더라도
요즈음 잠 잘 자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욕구가 해소되고 충족되지 못하는 현상이 일반이 되어 있다.
결핍이든 과잉이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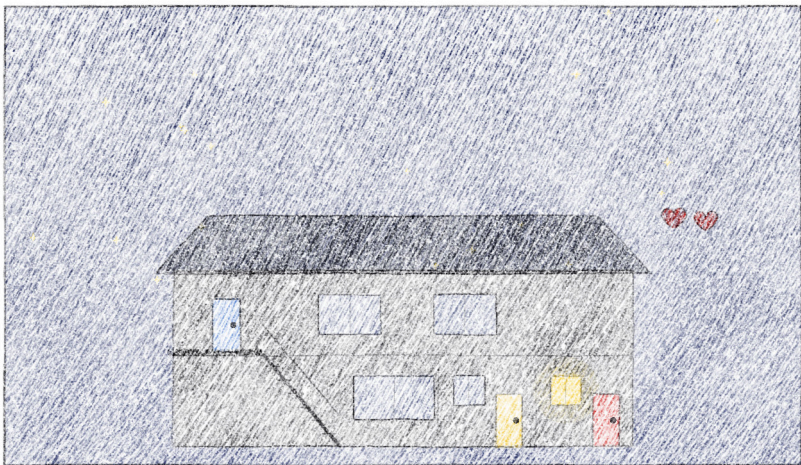
나는 2층 내 유닛 침대에 누워서
잠들 때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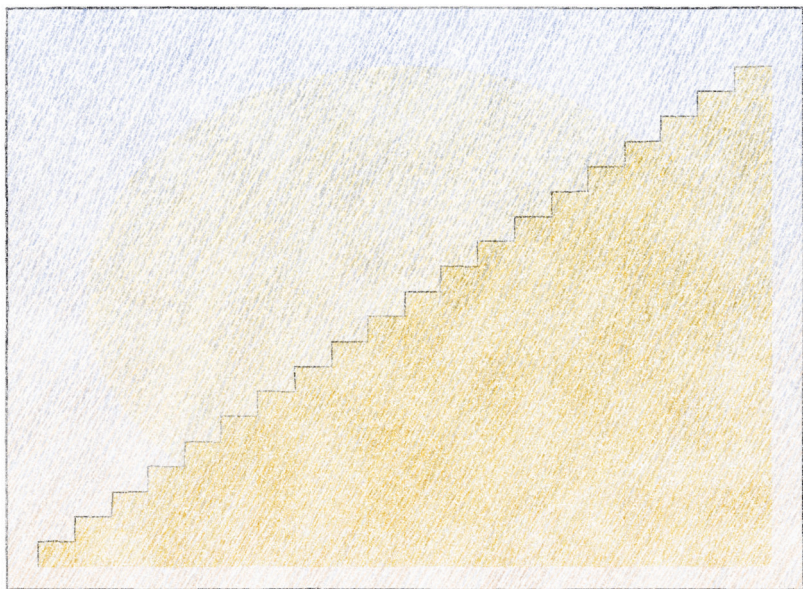
때로 자고 있는
스텔라 곁으로 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녀를 안고 잠을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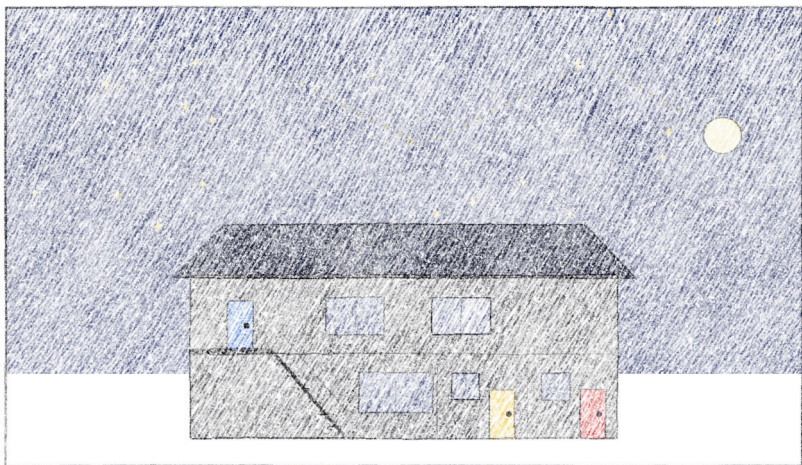
제니퍼 유닛으로 갈 때는 잠자리를 갖는다.
거기서 잠이 들거나, 다시 2층으로 와서 몸을 누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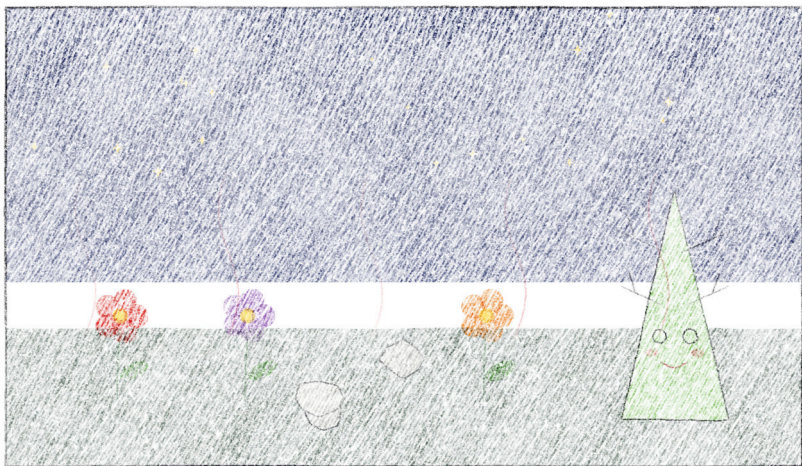
수면욕구와 식욕, 호흡 욕구와 성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와 사회적 욕구.
하루 일상 계단 오르내리는 동안 다함없이 채워진다.
족한 은총



이후 우리 셋 모두 꿈속일 때, 우리 삶터 여이지(여기-지금-이렇게)는
달과 별들이 하늘 천 위에 빛실 수놓는 자수방刺繡房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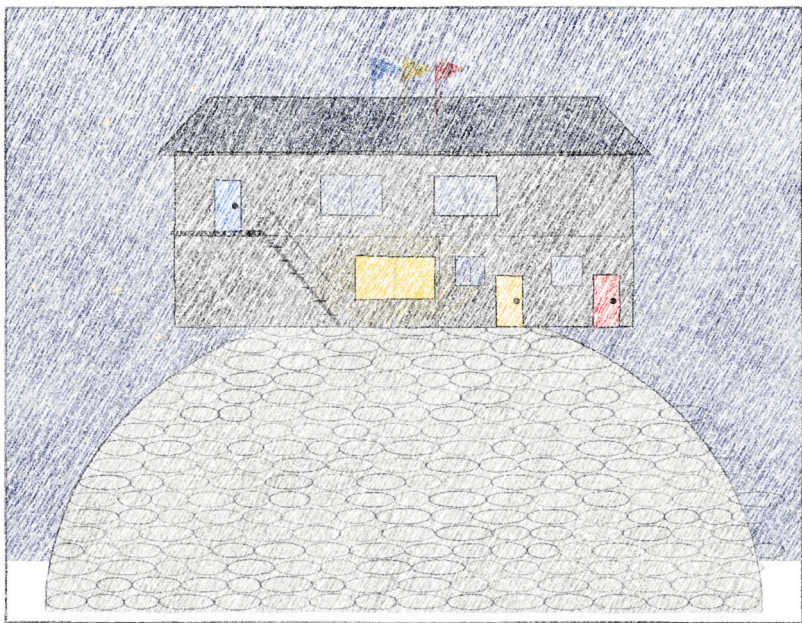


꽃과 풀과 나무와 돌들이 숨을 내쉬며
여이지 고유의 향수Perfume를 만드는 조향소造香所가 된다.



여이지의 성城Chateaux en Yeoji은 흐름과 체험의 덩어리塊이다.

자기 일에 행복한 일꾼이
내일의 새벽에 대해서 오늘 밤 느끼는
하늘과의 약속과 같이 살아 설레게 하는 것이다.



인생예술가人生藝術家Lifeist인 나 리프린의
성정과 싶음을 투기投企
(현재를 초월하여 미래로 자기를 내던지는 존재 방식)한
[특별-독특-깊음-고유의 일상 건설 프로젝트]의 환상에는
산 속 한밤중이라도 요괴스러운 데가 조금도 없다.

밤의 분위기도 전혀 없다.
세상에서 죽은 듯 살고 있는 생각과 생활들의 유령들이
쇠사슬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다.
나 리프린의 여어지는 어느 것이나 빛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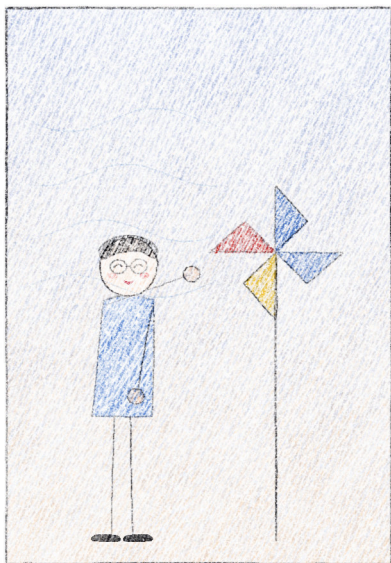


그것들은 이른 아침 태양과 같이 산뜻하고
따사로운 오전 한때와 같이 믿음직스럽다.

이것은 비전Vision([L]visio_보는 행위, 시각)이 아니고
 투기Project
 ([L]pro-_앞으로_iacere_던지다_앞으로 던져 놓다)인 것이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려 보는 바람desire
 ([L]de_멀리 떨어져
 _sidus_별)이 아니고

일으켜 만든
 실제 부는 바람
 吹く風 (ふくかぜ) 이다.



9장

세 사람 Three Persons

중증 치매에 걸린 사람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사고능력, 언어능력, 판단능력, 운동능력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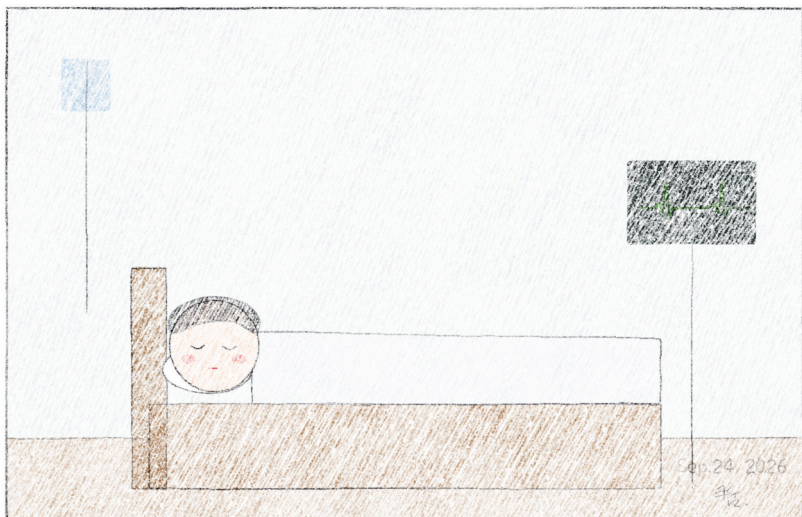
인간의 능력들이 사라진다.

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죽음을 기다리며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은

호흡만 하고 있을 뿐

주위에는 연명을 위한 의료기기들이 작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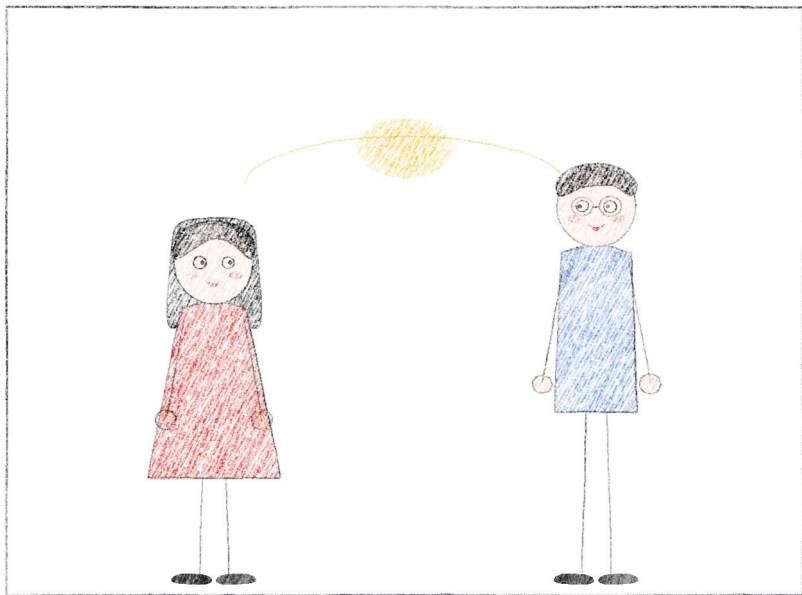


움직임이 없다. 반응이 없다. 표현이 없다. 바라봄도 없다.
생각도 없다. 감정도 없다. 사람으로서 제 명을 다한 것이다.

사람이 살아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의식意識Consciousness

([L]con-_함께_scio_알다_공동으로 알고 있는)이
있다는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 중증 치매 환자도 의식이 있다.

‘정신 나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할지언정 의식이 없다 할 수 없다.

심지어 잠시 후 곧 죽을 연명 치료 환자에게도

아직 의식이 있다고 한다.

사람이 살아 있다al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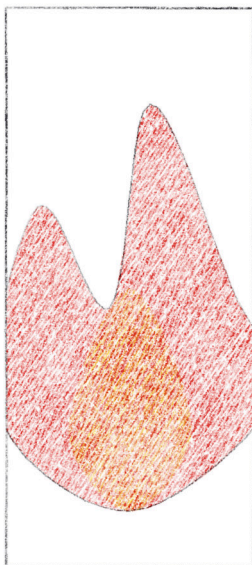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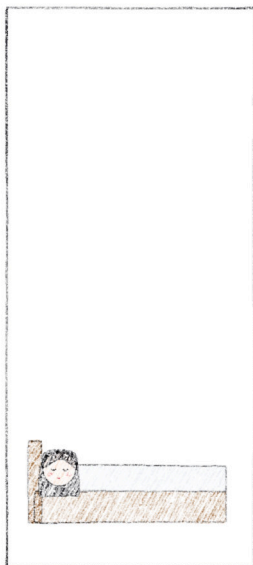
([L]a_on,in_live_삶,생명_삶 위에, 삶 속에 있는 상태)라는 것이
무엇인가?

고대 영어 표현에서 상태를 나타내는 전치사 ‘a’를 통해 풀어보자면,

asleep
(자고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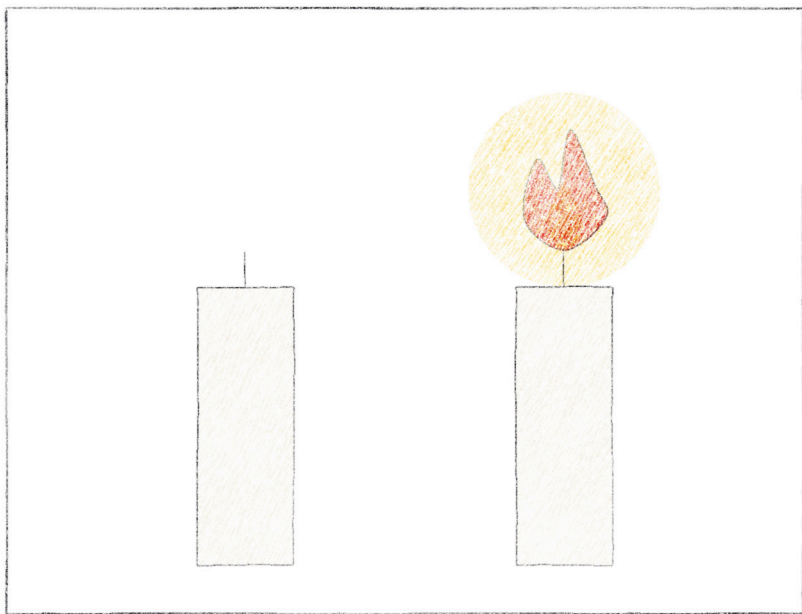
afire
(on fire,
불붙은 상태) 그리고

awake
(깨어 활동하는
상태)에서와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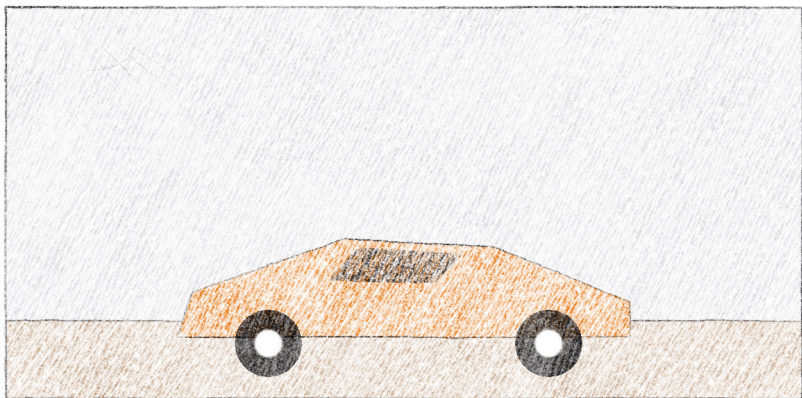
‘제 삶을 사는 상태’가 ‘사람이 살아 있다’의 뜻이다.

자기 삶이 있는가?
삶은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
생명이 붙어 있어도 제 삶이 없는 사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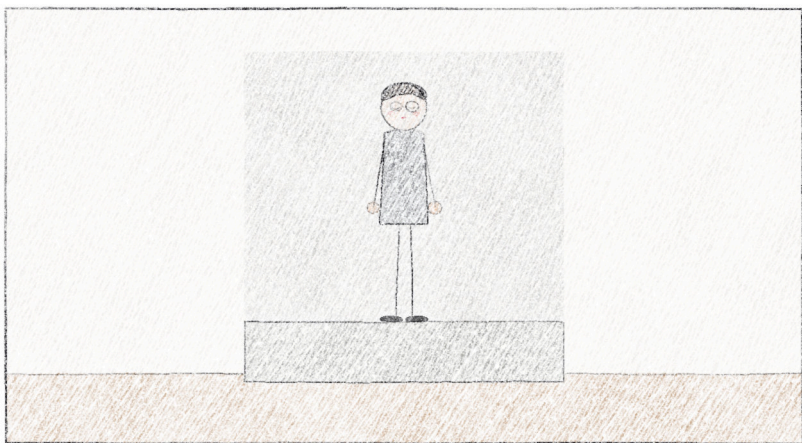


비유컨대 삶은
생명이 불처럼 붙어 생명력을 생산하는 사람의 상태이다.

람보르기니가 있어도 어떤 이유에서든 주행하지 않으면
주차된 값비싼 차량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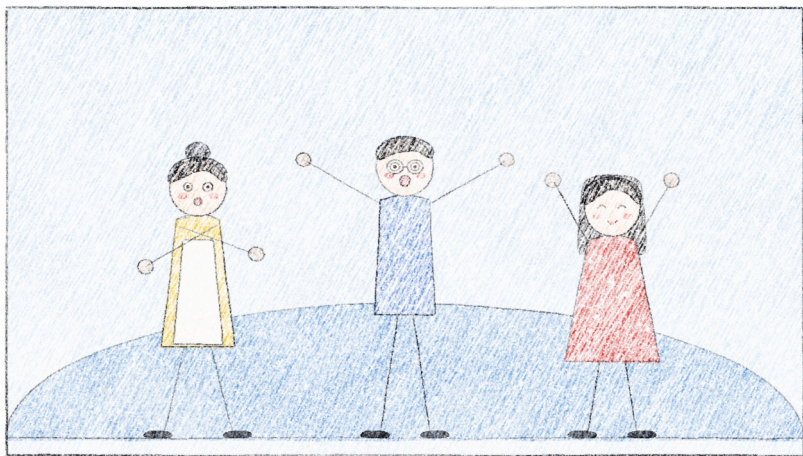
우주 만물 중 최대 걸작이며,
최고의 지적 생명체라고 하는 인간이라 해도
죽은 자처럼 잠자고 있는 상태로 살고 있다면,
물체物體일 뿐이다.



산 사람은 생명이 있고, 삶은 생명력이 있다.

심신체식心身體識⁵의 모음체인 사람은
생각하고, 감정하고, 활동하고, 표현하며,
반응하는 동물체動物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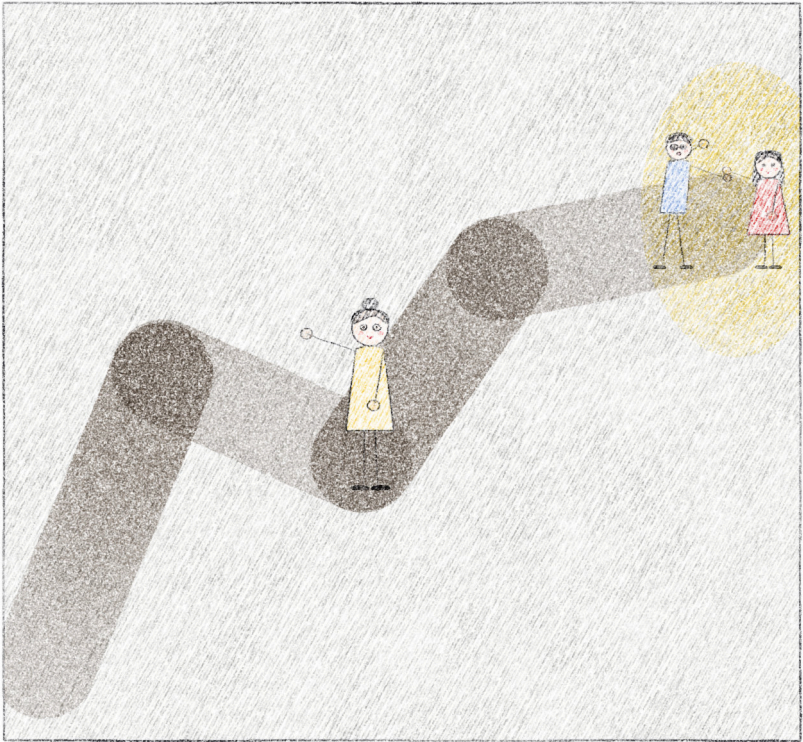
운동력이 있어 주어진 생명의 기간에
자신을 표현하고, 등장시키고, 활약하게 한다.
자기 삶을 사는 상태 곧 살아 있는 사람이다.



ㅅ | _
르 | ㄹ

5) 마음과 몸과 기풍과 지성.

개인적 성장과 때마다 파악되는 사회 생태 변화 그리고
8년 정도 몸소 건너 온 시대의 강의 흐름이라는
굴穴로 들어가 궁리窮理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삶]이 나의 삶임이 각오覺悟⁶되었다.
내 싶음을 이 삶 구현에 투기投企Project하며 살아 왔다.

6) 이치나 도리를 깨우쳐 앎.

혼자이어도 충일充溢⁷한 나.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친구, 곁, 가족, 파트너, 반려자, 연인...
되어 사는 [세 사람의 삶].



7) 어떤 기운이 가득차서 넘침.

결국

각자

홀로 소멸되어 사라질 생명체.

그러나 생명 있는 동안

무릇 할 수 있거든

각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따라

[세 사람의 삶]을 구현해내어

남겨 주어진 일상을

땅에 일궈진 천국 삶으로 살아 보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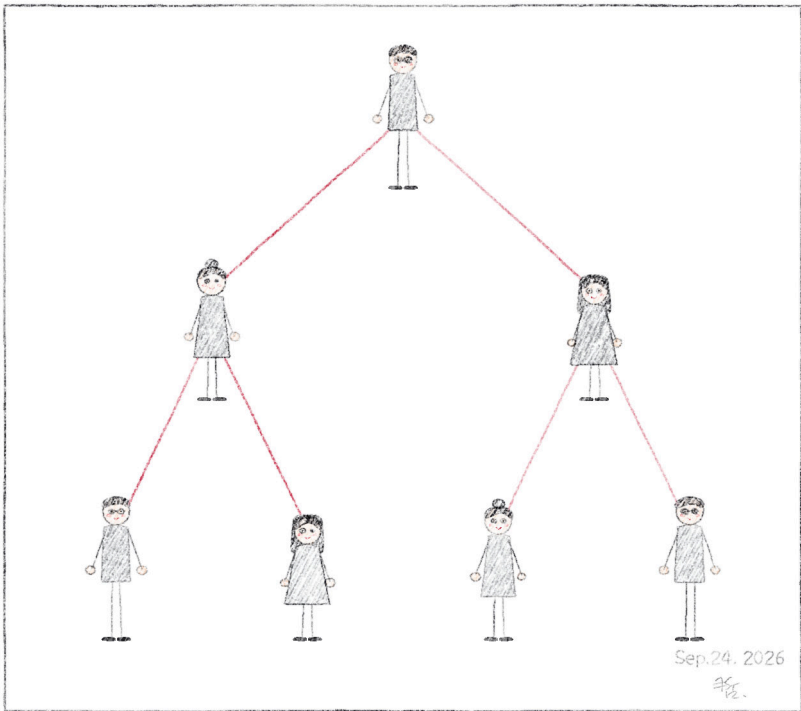


1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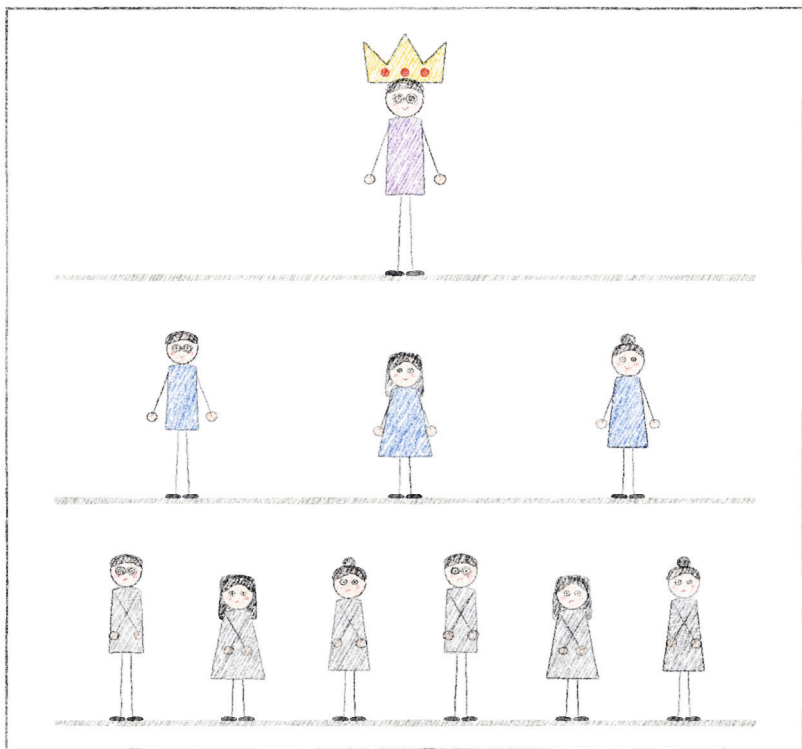
세 유닛Three Units

혈연血緣Blood ties_같은 핏줄로 이어진 인연.
사전에 이렇게 쓰여 있다.

생식 능력을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고
종족을 유지하려는 동물 본능이
핏줄 관계의 발원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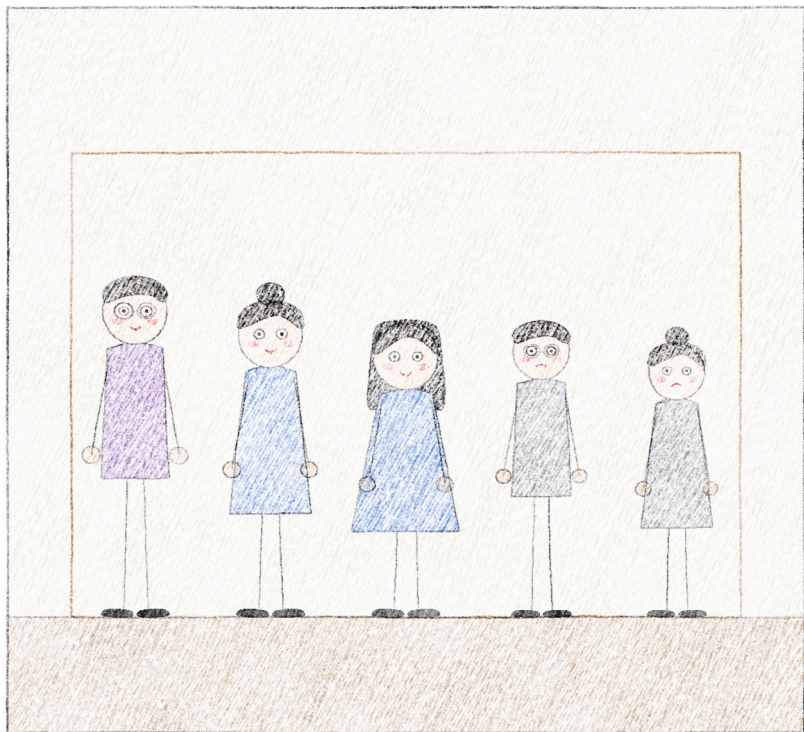


가족家族의 라틴어 어원 Familia는
 현대의 Family의 개념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었다.
 어근語根 Famulus는 하인이나 종이다.



패밀리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을 당시 그 단어는
 가족 전체, 특별히 노예와 하인들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범위가 넓은 가족을 말했던 것이다.

종속관계 즉 가주家主의 통제 아래 있는 집안 전체라는
가정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 부모와 자녀,
그리고 노예나 하인들까지가 파밀리아Familia이다.
혈연보다도 법적, 경제적 단위로서의 의미가 강한 개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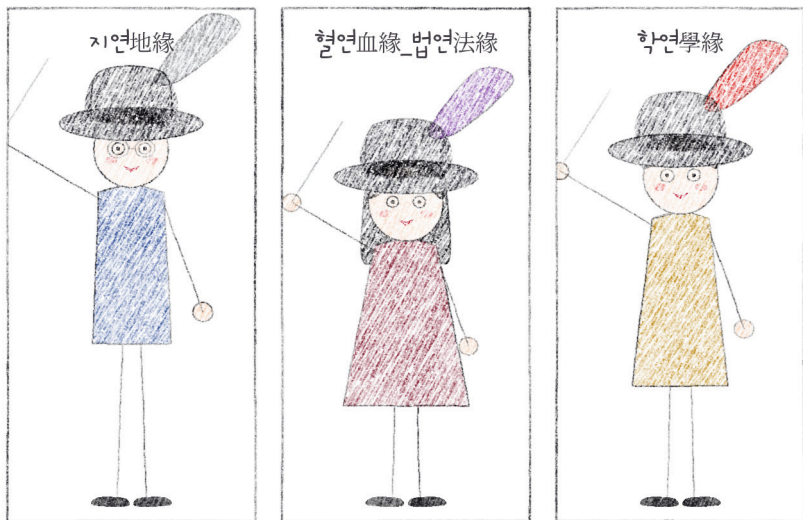
그 후 개인과 사회, 사상과 과학이
각각 그리고 함께 변화와 진보를 거듭해 오면서,
사람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형태로 살게 되었다.

학연School ties, 지연Regional ties, 혈연.

오랜 기간 한국 사회를 지탱했던

삼총사The Three Musketeers⁸이었다.

이 셋은 사회 중심에서 활약하며 관계 질서를 유지했다.



지연地緣은 아토스Athos(삼총사 중 가장 나이 많고 신중한 인물),
아라미스Aramis(준수, 우아, 지적, 매력적인 인물, 종교와 정치에 관심.

후에 성직자가 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혈연血緣_법연法緣,

포르토스Porthos(외향적이고 허세가 있지만,

유머러스하고 의리 있는 성품. 체격이 크고 힘이 센 인물)는

학연學緣이다.

8) 삼총사라는 제목의 소설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프랑스 왕궁 정예부대 소속 총사 삼인三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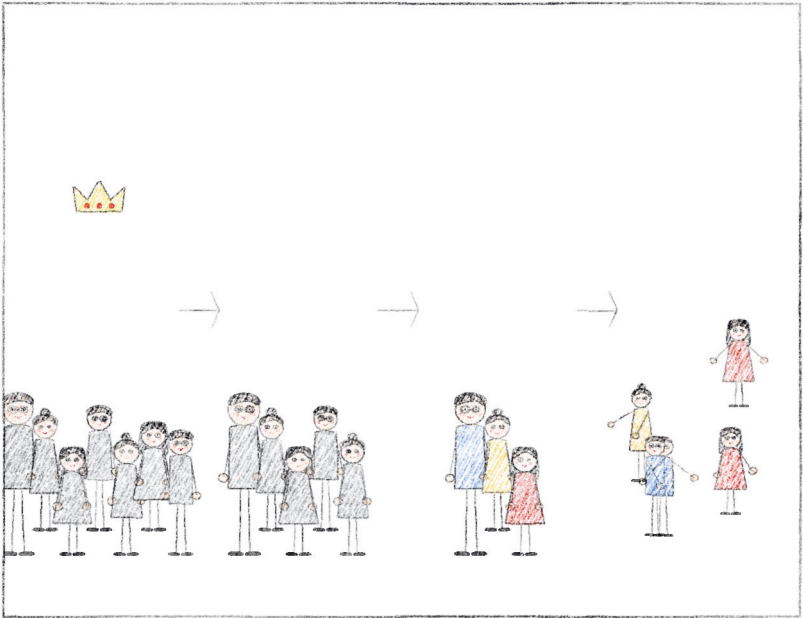
가족의 변천:

종법 위계 중심 대가족(계급 집단 가족 소멸)->

법적 호주제가 강화된 가족(가부장가족 소멸)->

산업화 이후 도시화와 이농현상 가속화로

핵가족화, 경제 중심의 가족(->전통 가족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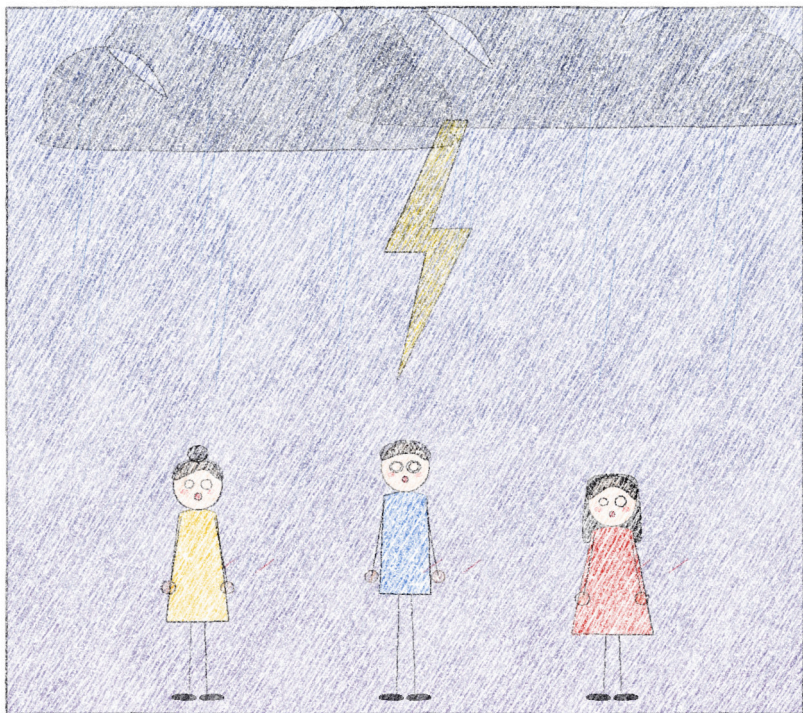
2000년 이후 다양한 가족 형태들 등장:

한부모, 1인 가구, 비혼, 재혼, 다문화, 동거,

비출산Childfree,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

가족의 형태로 다변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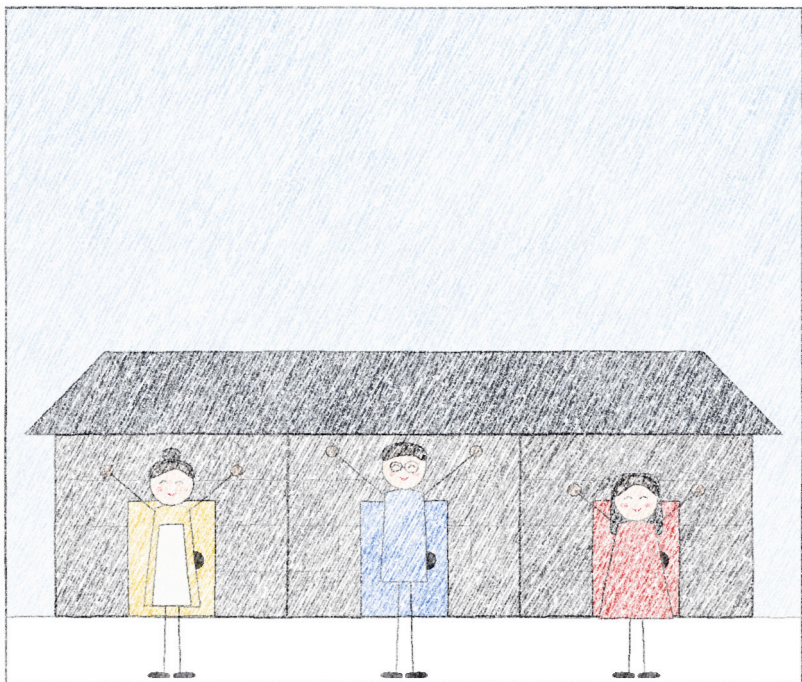
관계를 기후에 비유했을 때,
 그 기후 변화는 급하고 강하게 진행되었다.
 혈연Blood ties이 아닌 혈혈子子No ties의 때가 온다. 아니 이미.



단신單身이라는 단어를 빼도 혈子是 혼자라는 뜻이다.
 한자로는 혼자 그리고 뛰어남의 의미이다.
 내가 혈연子然이라는 신어新語를 조어造語Coin할 때
 그 뉘앙스는 부정적이 아니다.

No ties 즉 어떤 관계나 속박이 없는 상태나
감정적, 법적, 사회적 구속 관계가 없는 자유 상태를 뜻하게 된다.
유닛Unit의 존재이다.

그 자체로 생활주체이고,
또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성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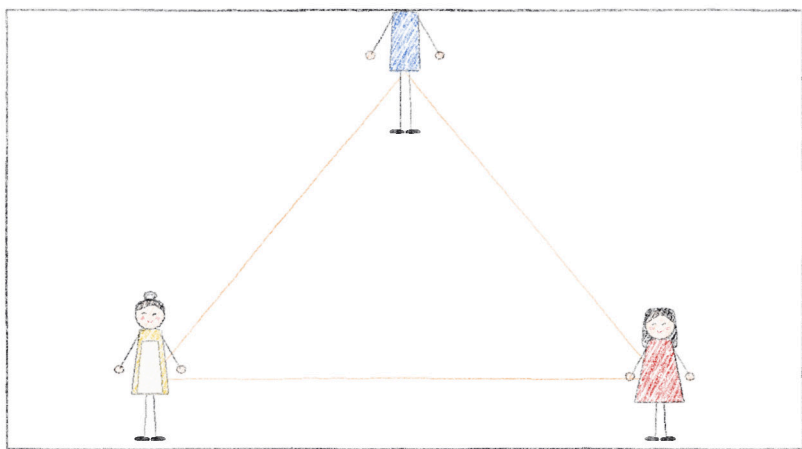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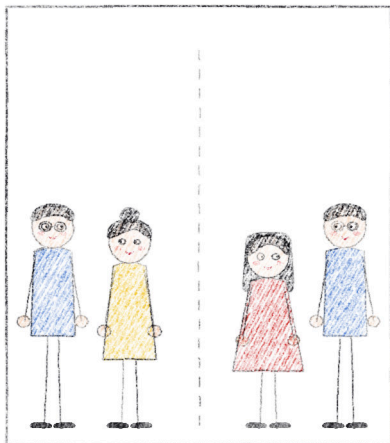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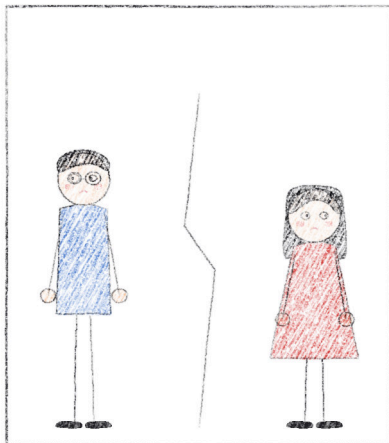


둘 이하로나 넷 이상으로는 유닛이 없다.

일치Unity라는 기치⁹ 아래

둘은 단절되고Divorced,

넷은 나뉜다Divi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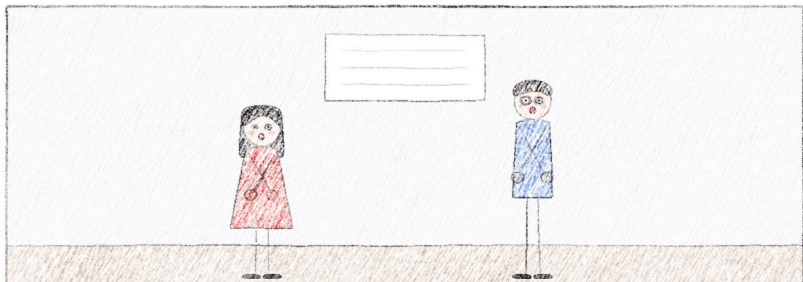
9) 기치旗幟_어떤 목적을 위하여 내세우는 사상이나 강령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내가 듀오Duo二人組라는 이름의 보컬팀 멤버라고 해보자.

소프라노와 테너, 파트 둘이다.

그런데 알토 파트가 있는 삼중창 악보를 받게 되었다.

앞으로 딱인 음악이었다.



그래서 알토 파트를 들어 트리오Trio 유닛Unit 형태로 변화했다.

소프라노, 알토 그리고 테너.

유닛의 주체들은 혈연子然 즉 No ties의 관계와 상태로
함께 노래하고 있다. Not by 혈연, 지연, 학연, 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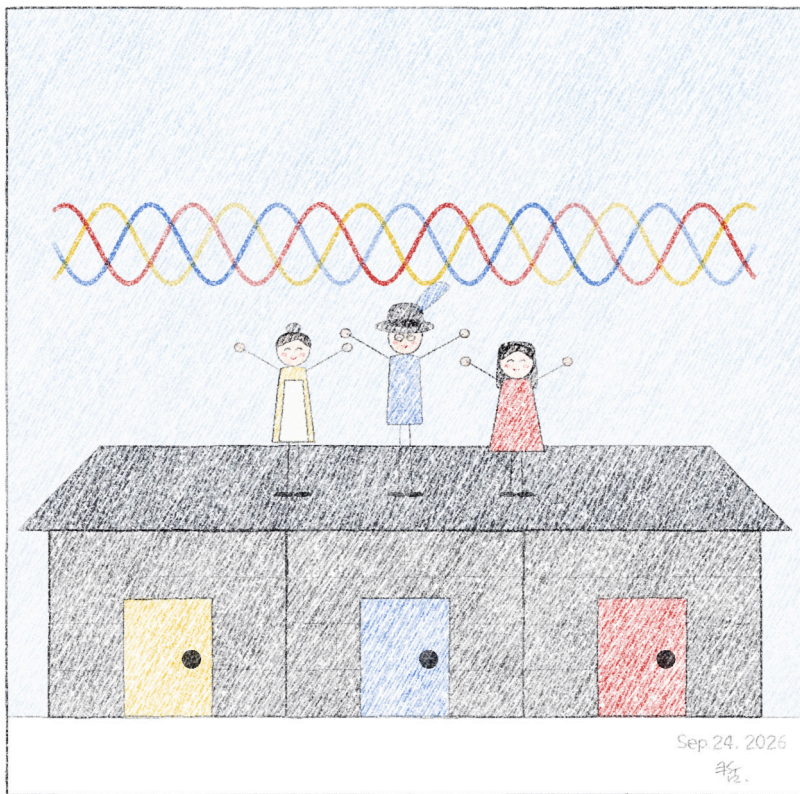


악보 선택이 다양해지고, 화음이 깊고 세련되어지고,

음악에 여유와 색채가 입혀진다.

결핍과 과잉, 필요나 불필요가 없다.

혈연子然No ties은 달타냥이다. 유닛이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All for one, and one for all!¹⁰

나에게 세 유닛Three Units은 새 삶의 문Life Door이다.

10) 삼총사 영화_삼총사들의 구호.

11장
삶 가족Life F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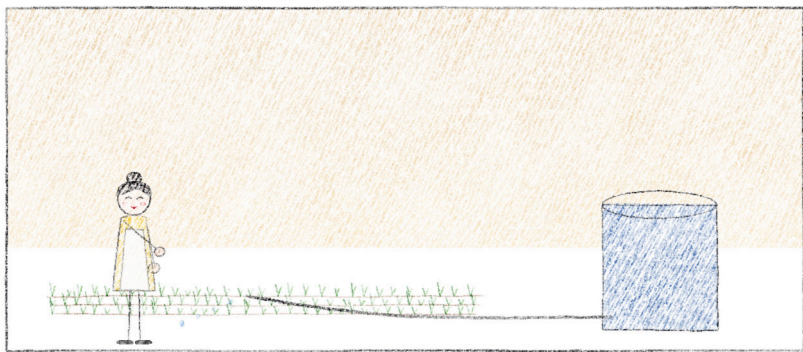
나는 늦은 오후 가사노동을 하는 것을 즐긴다.
넓은 집터 덕분에 잡초와 잡목들을 자르는 일도 하고,
맑은 계곡이 집 안에 위치하고 있어 산 속 상류로 올라가
계곡물을 물탱크로 끌어오기도 한다.
장작을 준비하기도 하고 연못을 만들거나
커다란 설치 작품을 제작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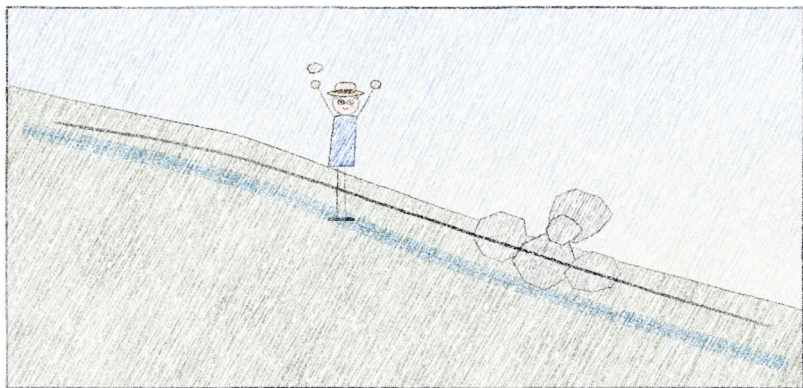
모두 땀이 흠뻑 날 정도로 몸을 힘껏 써야 하는 일들이다.

그중에 하나, 계곡물 끌어오기는
봄부터 가을까지 내 주요한 가사업무이다.

집에 상수도가 있지만
계곡의 살아있는 물을 식물들에게 주려 하는
스텔라의 귀한 생각에 내 땀에는 나의 최선을 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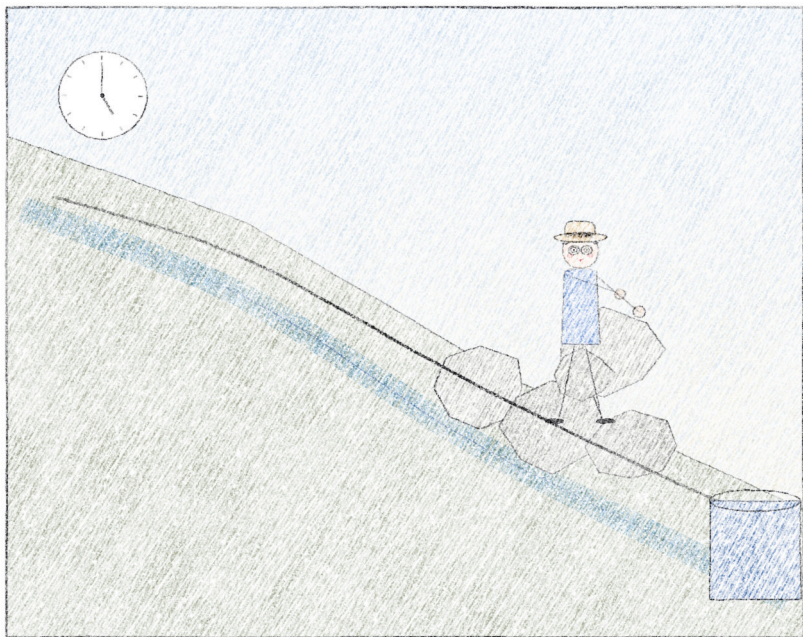
새로운 방법을 알아도 보고, 적응도 해보고,
무거운 돌을 들고, 나무를 자르고,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하고,
온갖 장비와 부품을 산 속으로 들고 올라가 일을 한다.



오늘은 오랜만의 비 후에 계곡에 설치된 파이프들을 점검하고
물길을 새로 잡으려고 산에 올라갔다.
자주 하는 일이라 이제 요령도 좀 생겼고
매일 운동을 몇 년째 한 터라 체력도 붙어서
이전보다 다치는 일도 많이 줄었고
한결 수월하게 작업을 한다.



거의 매번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오늘도 역시 상류부터 체크하며 작업을 하고 물길이 잘 잡혀
2시간 만에 마지막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 집 쪽으로 내려 왔다.
그리고는 늘 오르는 바위와 돌들의 경사면에 단단히 서서
부품을 조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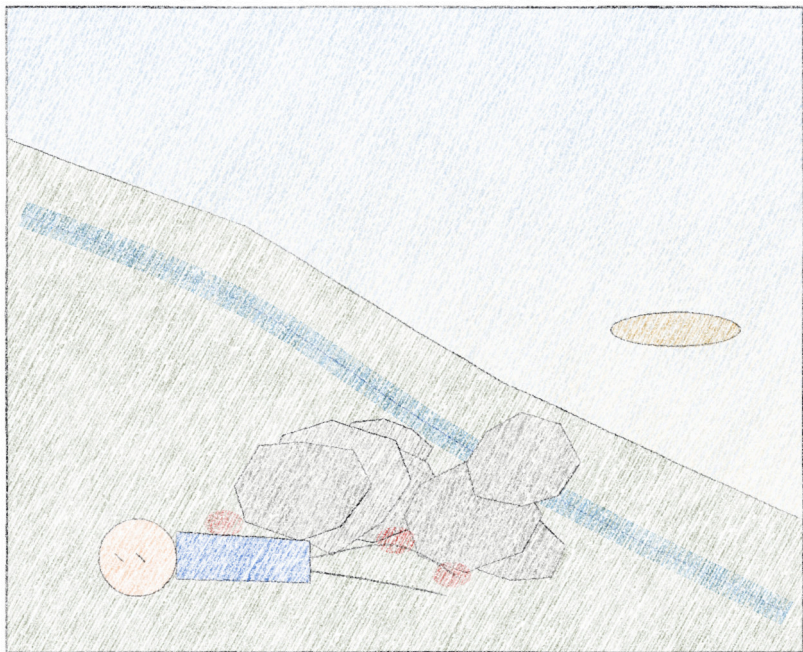
상류 쪽에서는 가장 먼 곳이고
집 쪽 물탱크에서는 가장 가까운
그야말로 작업의 마지막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발을 디디고 있는 큰 바위가 조금씩 움직이더니
산사태 아니 바위사태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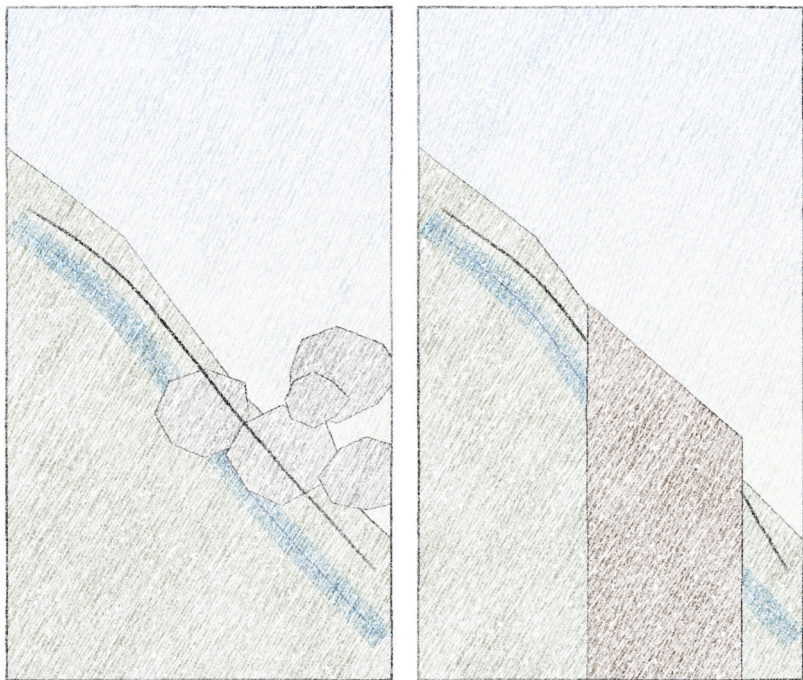
바위와 돌들이 굉음을 내기 시작하더니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바위에 무릎을 부딪치고,
돌들과 함께 밀려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발목, 손목, 손가락 모두 충격을 받았다.



겨우 몸을 추슬러 내려왔지만, 정말 위험했다.
초기에는 해 본 적이 없었던 일이라
이곳저곳 많이 다치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큰 사고를 경험한 적은 없었다.

내가 딛고 있던 곳이 무너진 것이다.



이제 계곡 그 장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지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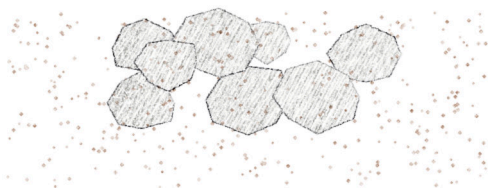
사람이 딛고 일할 수 있는 무엇 하나 없는 깎여 없어진 장소가 되었다.

들은 바로는 15년 이상 25mm PE 파이프가 그곳에 걸쳐져 지나가고 있었고,

내가 6년 동안 관리를 하며 그곳에서 작업을 해왔던

정말 커다란 바위들이 놓여 있던 곳이었다.

바위 위에 있는 돌들이 무너졌다.



삶이 무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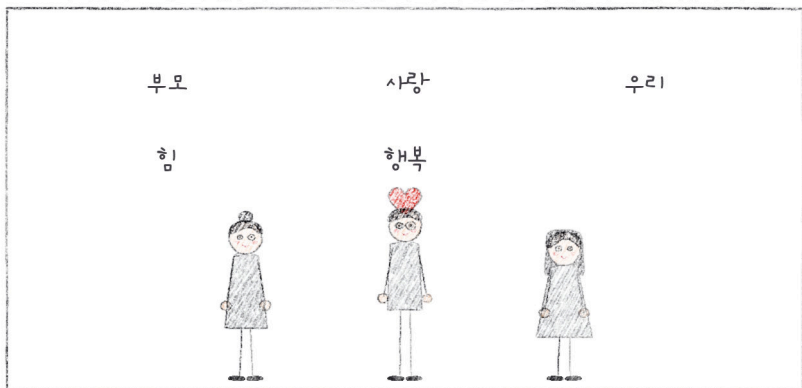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80%가 아파트에서 산다.
아이들은 아파트에 나고, 자라고, 단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한다.

남녀노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생각하면 안전과 편함을 느낀다고 한다.
주거형태로서 집하면 아파트가 생각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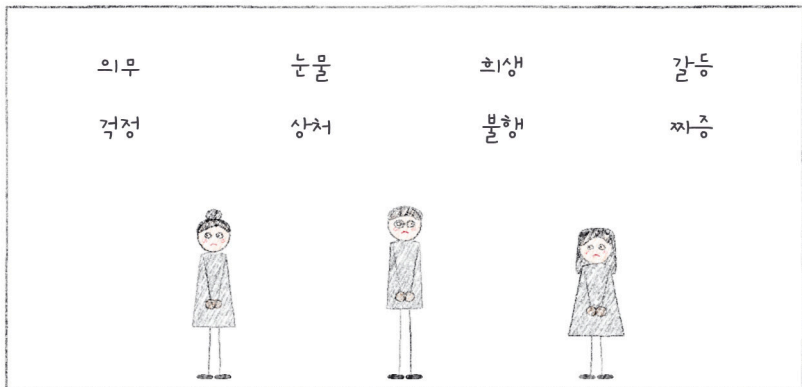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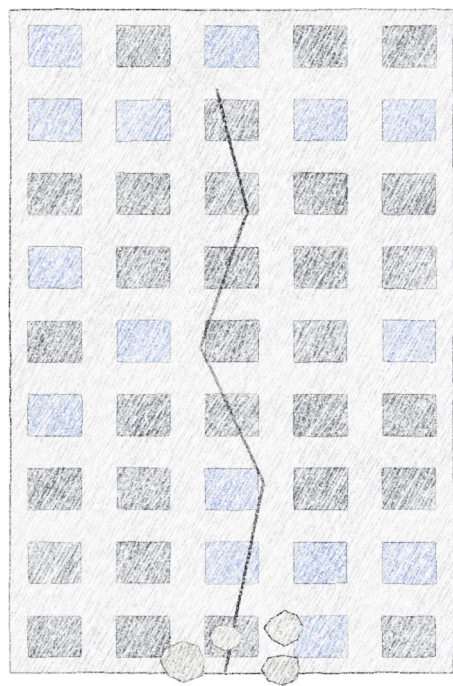
아파트가 집 삶의 형태로 가족하면 무엇이 생각날까?

전통 가족주의Familism가 무의식 속에 살아 있기 때문에,
우선 부모, 사랑, 우리, 힘, 행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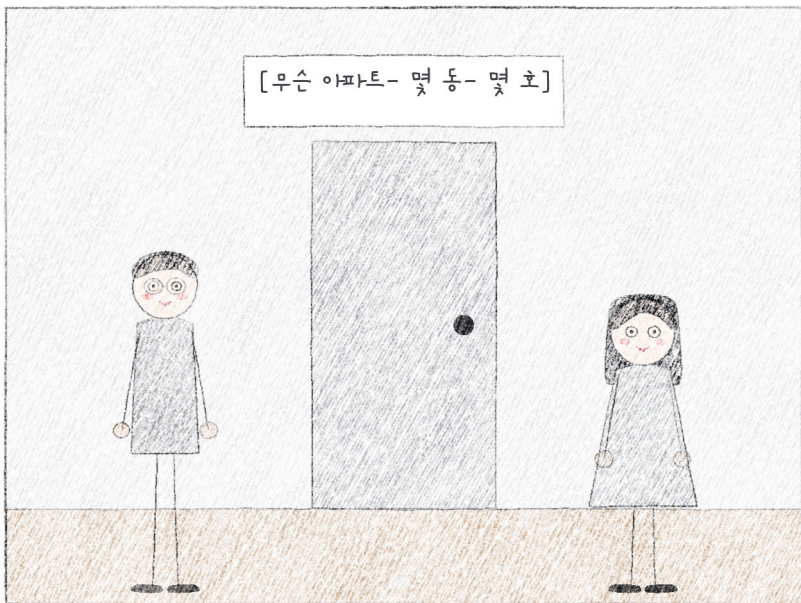
한편 1인 및 2인 가구가 가족 형태의 60%를 차지하는
현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무, 눈물, 희생, 갈등, 걱정, 상처, 불행, 짜증이라는
부정적인 단어 역시 생각날 것이다.





가족의 삶은 무너졌다.

현대인들 대다수가 현관문이 하나인 그들의 집,
아파트에서 법적, 혈연적 한 가족Unity¹¹으로 산다.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삼일치의 법칙The Three Unities¹²이 그대로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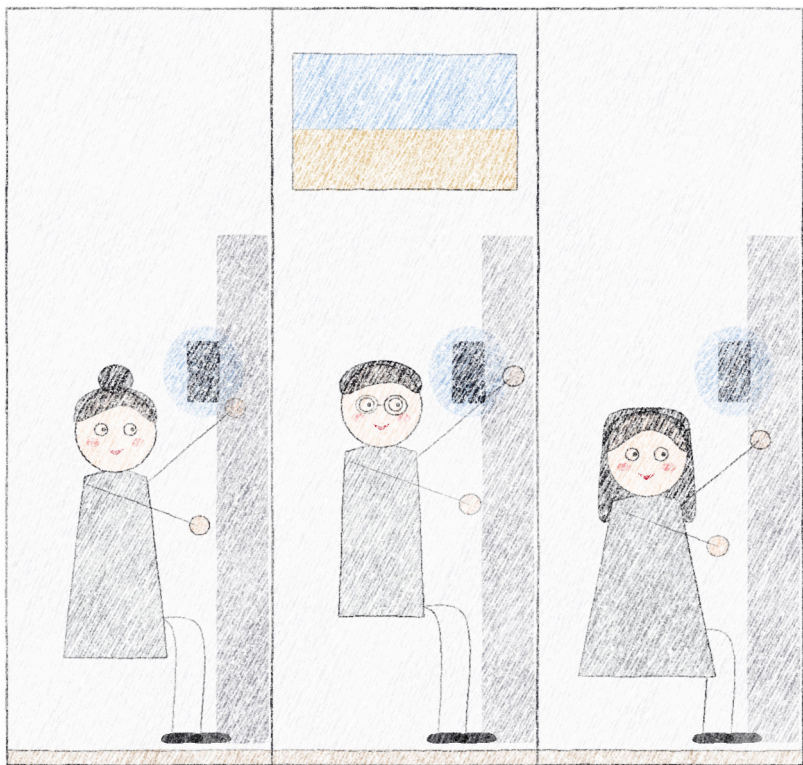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가가
한 가족의 사회적 위상이고, 생활의 수준이며, 사람의 정체이다.

11) 단일체, 통일체, [法] 부동산의 공동 보유.

12) [연극] 1.행동의 통일성Unity of Action 2.시간의 통일성Unity of Time 3.장소의 통일성Unity of Place. 삼일치 법칙은 신고전주의 연극에서 중요한 이상으로 간주됨. 이 원칙들이 잘 정리된 드라마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 명확성, 질서, 우아함을 보장해 준다고 믿음.

그러나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안에서는
남녀차이, 세대차이, 관점차이 등으로 방문들이 닫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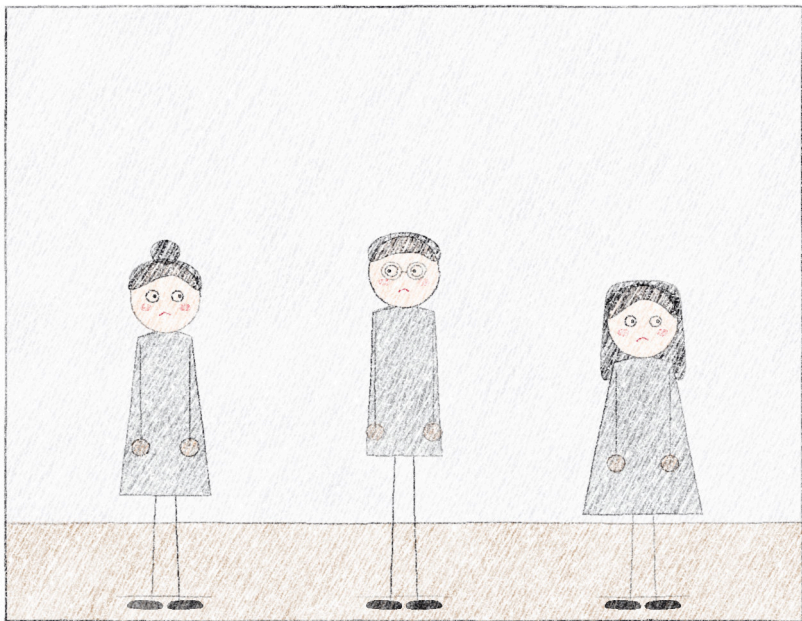
각자 스마트 기기들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이들과 삶을 공유하며,
저 멀리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되는 삶을 꿈꾸고 있다.
연극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삼일치의 원칙이 무너졌다.

정서적, 생활적, 관계적 분리

Divorce

([L]dis_apart떨어져_vertere_to turn돌아서다)의 상태이다.

시선의 맞춤과 피부의 맞댐이 없다.



가족들의 주거공간으로서의 아파트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가족들의 삶의 공간으로서의 집은

바위 위에 세워졌었음에도 무너졌다. 바위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바위는 바로 가정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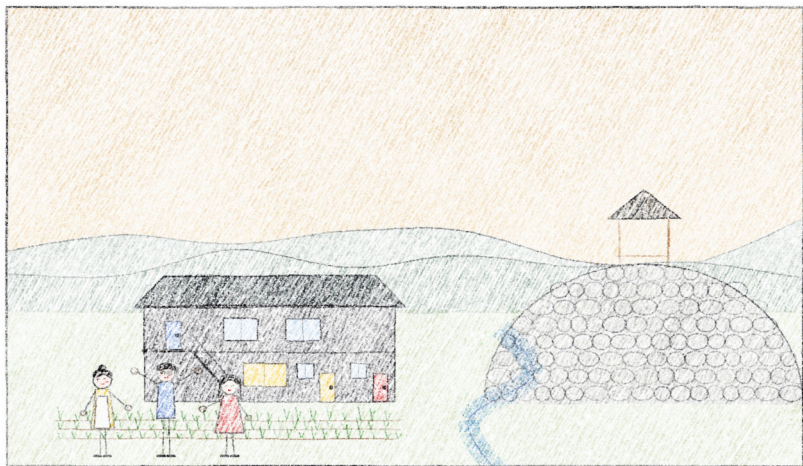
직업이나 돈벌이가 아닌 가족인 사람들의 일을 말하고 있다.

가족들 모두 각자 자기 삶을 추구하며 그로 힘들고 고되다.

그러나 삶의 일, 곧 가족이라는 사람들로서
서로 교감하며, 교류하며, 교통하는 일이 없다.
집에서 하는 일은 잡무다. 가족에 가족의 삶이 없다.



반면 삶 가족Life Fam.은 제 일도 하고, 직업도 갖고,
투자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다 하지만,
목적은 가족이 된 사람들과 이러한 삶을 함께 하기 위함이다.



가정 일, 가사 일은 전담 구성원이나 로봇이나
도우미가 해야 할 잡일이 아니다.

여기서-지금-이렇게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이다.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하고 자기 성찰을 하는 것도 고귀하지만,
일을 주는 삶터에 무릎을 꿇고, 두 손바닥을 대고
이렇게 살고 있음에 감사, 감격하기도 해야 한다.
마주 봄과 마주 댐.



삶 가족Life Fam.은 삶 농장Life Farm의 일꾼들이다.
일을 할 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 서로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일을 마치면 한 자리에서 서로 만날 것임을 알고 있다.



이런 삶은 가족을 안전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곳이 되게 한다.

나와 스텔라와 제니퍼는 가족의 일들을 하며
세상 희귀한 [삶 부족Life Tribe]이 되어 살아간다.



삶 가족Fam. 바위Rocks!

12장

진정한 나 Authentic Me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가?’

성경에서 예수가 자신과 함께 지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했다.

그 대답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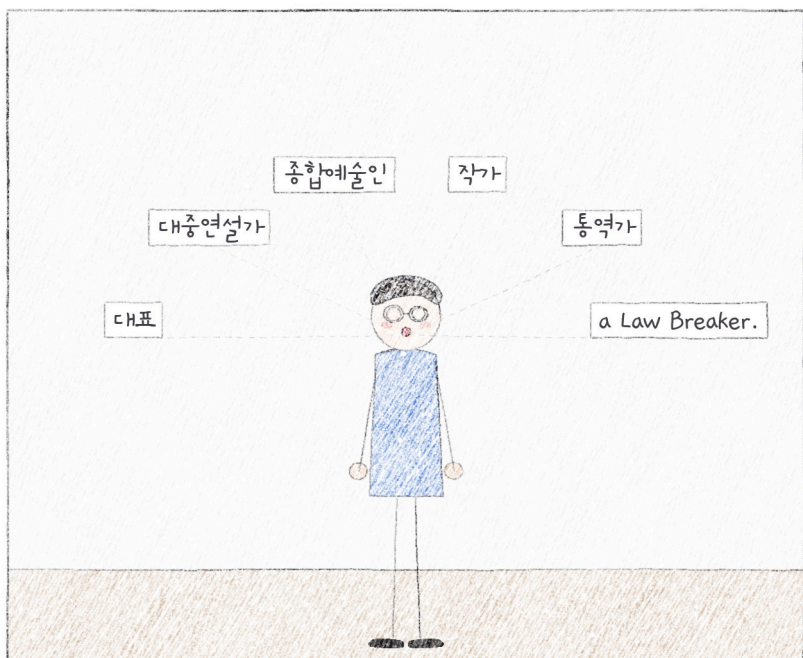


그러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But what about you? Who do you say I am?’ 다시 묻는다.

오직 베드로라는 제자 한 명만 대답하고, 그것은 정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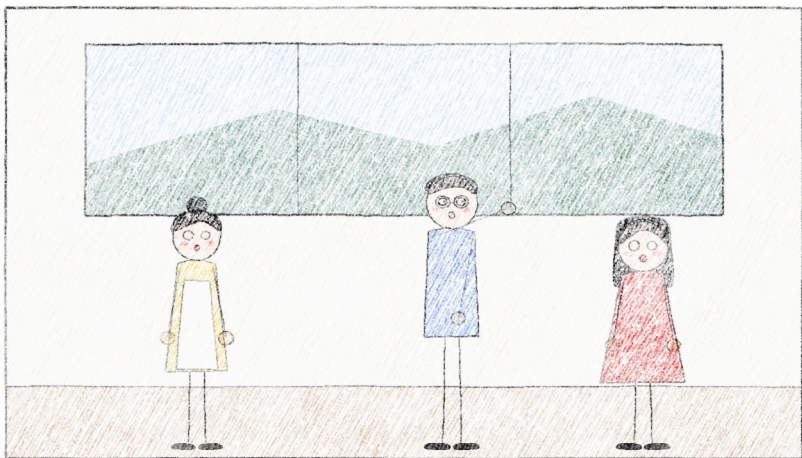
진정한 나. 나는 누구인가?



가족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나하면
어느 회사의 대표로 생각한다. 혹은 대표였던 사람,
더러는 학자풍의 대중연설가,
어떤 이들은 다시 이전 일을 더 귀하게 감당해야 할 인물,
또는 무대 디자인과 건축, 음악과 예술을 다루는 종합예술인,
작가, 통역가,
a Law Breaker.

전지전능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질문을 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진정한 자신 Authentic Me을
명상과 현실 속에서 깨달아 파악한 사람은
자신을 진정으로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고
도리어 풍문으로 들은 바대로 알고 있는
결의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타인의 인정과 인증, 확인과 확증을 위해 묻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제하며, 교통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되도록.

진정한 나Authentic I는 진정한 우리True Is¹³이다.

그 외에는 우리¹⁴는 남¹⁵이다.

진실로, 실제로.



13) 한국어의 우리는 때때로 1인칭 단수(나)를 뜻하면서 상대와의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는데 쓰인다. 우리집->내 집my house. 우리 엄마->내 엄마my mom. 북한에서는 지금도 1인칭 복수로 '우'를 많이 쓴다. (例) 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 고대 한국어 우(나)+리(복수형 접미사). 나들, 나와 함께하는 이들(1인칭 복수 대명사).

14) 영어의 We와 같다. 화자와 청자(혹은 제3자)를 포함하는 정확한 집단을 지칭한다.

15) '남'은 중세 한국어 나마, 남아, 남이 등에서 유래.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나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을 뜻한다. 남편의 유래는 남+편(쪽)->가족 관계 밖의 남자 쪽. 남자 역시, 남(타인 또는 사람)+자(사람, 놈 등) ->다른 사람을 의미했지만 후에 성별 구분 용어로 변화되었다.

남의 말 하기는 식은 죽 먹기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남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고,

내가 의식과 깨달음 없이 남들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진정한 그 존재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식은 이러하고,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싯다르타]에서 헤세가 말한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버릴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얻는다.’

버릴 것들은 나의 진정한 것들이 아닌 나에 관한 것들이다.



[진정한 나]는 설문조사나 Q&A, 리서치, 주변인 방문 조사,
직업명이나 직책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절대로.

진정한 나는 진정으로 나답게 살아갈 때
내 앞에 나의 삶으로 나타난다.



진정한 나는 묻는다.



그들도 나에게 종종 묻는다.



우리는 서로에게 답을 한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내 곁에 있다:

스텔라.

제니퍼.

진정한 나Authentic I는

진정한 우리True Is이다.

셋 둘 하나

Three Persons, Three Units & The Fam.